

2022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SDGs) 이해
‘읽고 제안하기’

목 차

Contents

PART 1

2022년 SDGs이해 선정 도서

5

PART 2

2022년 SDGs 읽고 제안하기 우수 제안 선정

15

PART 3

시민 참여 제안지 모음

31

PART 4

우수 제안 선정 회의

79

PART 5

도서 선정 회의

83

PART 6

읽고 제안하기 전체 참여자 명단

87

PART 7

부록1 <2020·2021 우수 제안 모음>
부록2 <지속가능발전목표>

93



창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읽고 제안하기'

사업취지 및 목적

- 환경보전 및 사회, 경제, 문화를 통합하는 교육을 독서 교육을 통해 시민, 공무원, 기업, 사회단체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참여형 온라인 학습 토론 유도
- 독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양성하고 실천과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유도
- 기업, 학교, 사회문화 단체 등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창원형 지속가능발전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제시형 교육
- 비대면 시대에 따른 온라인 학습을 통한 창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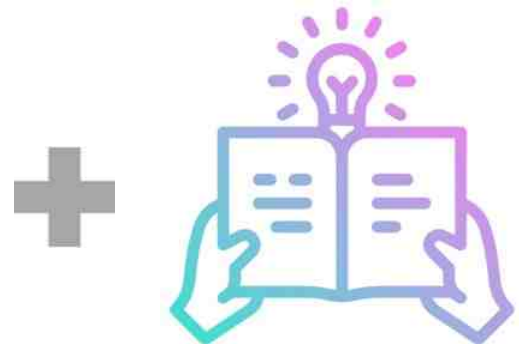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9월 ~ 11월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창원 만들기 도서선정 위원회 구성
 -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등 17개 목표 분야별 전문가 선정
 - 비대면 온라인 독서 교육 및 정책 제안

추진계획

- 목 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산
 - 창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시민 정책 제안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4 양질의 교육 이행

책 읽고 제안하기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창원

■ 대상 : 창원시민 누구나 (선착순 100명)

■ 참여 방법

step 1
도서 선택하기

추천도서 中
1권 선택 후
구글폼 신청서 작성

기간
22.9.29.~22.10.10.

step 2
도서 배송

담당자 접수 확인 후
도서배송

기간
22.10.11.~22.10.15

step 3
미션지 제출

읽고 제안하기
미션지 제출

기간
22.10.16.~22.10.31

step 4
발표

우수 미션지 선정

일자
22.11.15.



신청QR

■ 참여특전 :

- 신청 도서 1권 무료제공
- 미션지 심사선정 후 **창원사랑상품권 증정**

※ 추천도서 목록과 [미션지 양식]은 "신청서 내 안내사항" 또는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리집(<http://greencw21.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의 ☎ 055. 225. 3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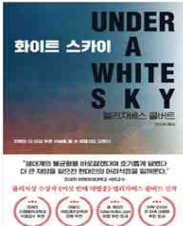
2022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읽고 제안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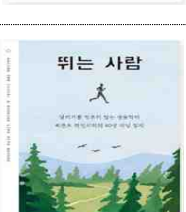
PART 1

2022년 SDGs이해 선정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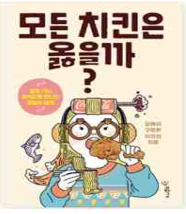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SDGs) 온라인 독서 교육 “읽고 제안하기” 도서목록

분류	도서명(출판년도) / 저자 / 출판사	책 소개
성인	 화이트 스카이(2022) ■ 저자/엘리자베스 콜버트 ■ 출판사/ 쌤앤파커스	지금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노력의 결과 인류가 마주하게 된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특유의 문체로 냉정하고 정직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2020) ■ 저자/타일러 라쉬 ■ 출판사/알에이치코리아	수도를 열면 물이 쏟아지지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하지 않는 점을 지적 한다.
	 동물을 위해 책을 읽습니다(2021) ■ 저자/김보경 ■ 출판사/책공장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책의 힘을 믿는 책이다. 종, 인종, 젠더, 경제적 차이 등에 의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성찰하고 지혜롭게 맞서는 방법을 책에서 찾는다.
	 사회적 농부(2022) ■ 저자/정기식 ■ 출판사/작은 것이 아름답다	우리 농촌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과 ‘사회적 농부’의 삶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대안을 찾고 공유하기 위한 기록
	 갯잎 투쟁기(2022) ■ 저자/우춘희 ■ 출판사/교양인	그 많은 갯잎은 누가 다 키웠을까? 삶이 투쟁이 되는 갯잎밭 이주노동자 이야기. 이 책은 결코 ‘인력’으로 치환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말한다.
	 로컬로 텃(2022) ■ 저자/우치다 타츠루(박우현) ■ 출판사/이숲	저자 우치다는 일본의 정치·사회·역사의 궤적을 개괄하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이 되살아나려면 정부와 미래의 주역 청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통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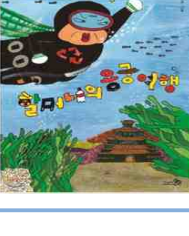
분류	도서명(출판년도) / 저자 / 출판사	책 소개
성인	 오늘의 에코 라이프(2022) ■ 저자/테사 워들리(류한원) ■ 출판사/양철북	홍수나 가뭄 같은 기후 재난 등 지구가 경고를 보내고 있는 지금, 본격적으로 환경 운동가가 되지 않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에코 실천법들이 있다.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2022) ■ 저자/윤승현 ■ 출판사/학교도서관저널	도서관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도서관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를 찬찬히 짚어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바다 인문학(2022) ■ 저자/김준 ■ 출판사/인물과 사상사	바다는 인간의 고향이자, 바닷물고기의 삶터다. 명태에서 멸치까지, 동해에서 제주도까지, 바다와 자연과 인간의 숭고한 삶에 대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 뉴딜(2020) ■ 저자/김병권 ■ 출판사/책숲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적 문명적 '전환Transition'에 주목하고 전 사회적 논의가 '긴급성'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2021) ■ 저자/캐시어 바디 ■ 출판사/현대지성	이 책은 꽃에 대해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부분, 그냥 지나쳤던 익숙한 삶의 풍경을 보다 자세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해준다.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2022) ■ 저자/고은경 외 ■ 출판사/공명	국제사회 속에서 부탄의 환경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준다.
	 뛰는 사람(2022) ■ 저자/베른트 하인리히 ■ 출판사/월북	나이가 들면 슬슬 달리기를 접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70대에도 끄떡없이 젊은이들과 울트라 마라톤을 즐기는 그에게서 희망을 얻었다.

분류	도서명(출판년도) / 저자 / 출판사	책 소개
성인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2021) ■ 저자/마이클 셸런버거 ■ 출판사/부키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환경 운동 진영과 과학계뿐 아니라 언론과 일반 대중에게까지 큰 파장과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2022) ■ 저자/김영희 ■ 출판사/달	이 책에는 작가가 체득한 공생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오감으로 접했던 자연을 저장해둔, 자신만의 머릿속 호텔의 문을 활짝 열어 독자들을 초대한다.
성인 · 청소년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2022) ■ 저자/미카엘라 르 뵈르 ■ 출판사/풀빛	친환경 정책과 재활용 산업의 모순, 쓰레기 식민주의로 인한 불평등의 실태를 담은 이 르포에 주목하라. 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기 위해 눈을 떠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함께 쓰는 물, 흙, 공기 (2019) ■ 저자/몰리 뱅 ■ 출판사/엄혜숙	간결한 글과 강한 색채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질문과 교훈을 주는 《우리가 함께 쓰는 물 흙 공기》를 통해 공공 자원의 소중함과 개념을 알려주는 그림책
	 기후위기와 비즈니스의 미래 (2021) ■ 저자/김지석 ■ 출판사/라이스메이커	저자는 지금 당장 국가, 기업이 탄소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저탄소 사회로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탄소로 쓴 식탁(2022) ■ 저자/윤지로 ■ 출판사/세종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기후 위기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 등 함께읽고 함께 생각해야 할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다.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 ■ 저자/홀리 터펜 ■ 출판사/한스미디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여행자의 선행 영향력으로 여행지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안

분류	도서명(출판년도) / 저자 / 출판사		책 소개
성인 · 청소년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집(2022) ■ 저자/우달라이 라마 ■ 출판사/산현재	달라이 라마의 시, 독일 언론인 프란츠 알트가 달라이 라마와 나눈 대담, 기후 십계명, 오늘의 생태 위기와 해법에 관한 프란츠 알트의 글이 실려 있다.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 제주편 돌하르방어디 감수광 (2021) ■ 저자/유홍준 ■ 출판사/창비	제주도에 더 이상 인간의 간섭이 없었으면 하는 저자는 구상나무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언급한다. 저자의 제주 사랑이 듬뿍 담긴 이야기를 통해 제주의 숨겨진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다.
		위대한 밥상(2022) ■ 저자/서정홍 ■ 출판사/다림	『위대한 밥상』 속 식자재를 키우고 다루는 삶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얼마나 많은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았는지 알 수 있다
청소년		희망 정거장에 온 아이들 (2022) ■ 저자/박경희 ■ 출판사/단비	《희망 정거장에 온 아이들》은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의 삶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대결 구도로만 그려지는 가십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언노운 UNKNOWN(2022) ■ 저자/이진 ■ 출판사/해냄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으로 고민하는 주인공 ‘우현’이 온전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이다.
		선생님, 인류세가 뭐예요? (2022) ■ 저자/박병상 ■ 출판사/철수와 영희	이 책은 기후 위기, 대멸종, 화석 연료, 플라스틱, 초미세 먼지, 핵 발전소, 콘크리트 등을 주제로 인류세가 무엇인지, 대멸종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모든 치킨은 옳을까? 열두가지 음식으로 만나는 오늘의 세계 (2021) ■ 저자/오애리 외 ■ 출판사/우리학교	한국 십대가 즐기는 먹거리를 골라 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과 이슈를 알아보고 흥미진진한 음식 이야기를 안내한다.

분류	도서명(판년도) / 저자 / 출판사	책 소개
청소년	지구 생활자를 위한 책, 바이러스, 탄소 이야기(2022) ■ 저자/김경태, 김추령 ■ 출판사/단비	원자력 발전, 코로나19, 기후 위기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대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 설명한 책으로. 가상 소설로 재미를 더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책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2021) ■ 저자/마야 괴펠 ■ 출판사/나무생각	이 책은 한계에 직면한 지구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한다. 미래 사회의 공존을 위한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다.
	지금 우리결의 쓰레기(2022) ■ 저자/홍수열, 고금숙 ■ 출판사/슬로비	저자는 이 시대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순환경제'를 통해 쓰레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2017) ■ 저자/이상권 ■ 출판사/특별한 서재	숲을 소재로 하여 아이들에게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강조하며 올바르게 참되게 성장할 것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의 이중성을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았다.
	생명을 먹어요(2022) ■ 저자/우치다 미치코 ■ 출판사/만만한 책방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다른 많은 생명들에 기대어 살고 있고, 이런 순환의 관계를 실감할 때 비로소 희생해 준 생명들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
초등 (고)	양심을 팔아요(2022) ■ 저자/신은영 ■ 출판사/내일을 여는 책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왜 우리에게 양심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책이다.
	물은 정말 힘이 세(2017) ■ 저자/김영호 ■ 출판사/시공주니어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지낸다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정도로 물은 우리의 생명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더 더욱 물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분류	도서명(출판년도) / 저자 / 출판사	책 소개
초등 (고)	이제 전쟁 난민보다 환경난민이 많대요(2021) ■ 저자/장성익 ■ 출판사/풀빛미디어	건강한 지구를 위해 어린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 서른 가지를 소개하고, 나아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한 걸음 더’ 코너를 통해 다양한 환경 주제를 담은 책
	제1차 세계동물 정상회의(2021) ■ 저자/그웬나엘 다비드 ■ 출판사/토토북	2030년, 지구 역사상 최초로 ‘제1차 세계 동물 정상 회의’가 열린다. 심각한 기후 재앙과 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2021) ■ 저자/러브데이 트리닉 ■ 출판사/비룡소	80억 명의 인간이 1명의 거인이라면?이라는 독특한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80억 인류가 뭉쳐진 거인을 통해 지구의 여러 환경 문제를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쓰레기 대폭발(2020) ■ 저자/클레어 이머 ■ 출판사/사파리	쓰레기에 담겨 있는 역사적 의미와 쓰레기가 바꿔 놓은 세계 곳곳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 어렵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또리네 집 1, 2 세트(2022) ■ 저자/정은혜 ■ 출판사/보리	『또리네 집』은 일상을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만화로 그려 내면서 독자들에게 장애와 인권 문제를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는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초등 (저)	이끼야, 도시도 구해 줘!(2019) ■ 저자/강경아 ■ 출판사/와이즈만	환경지표종 이끼를 다룬 최초의 어린이 그림책, 달팽이의 여정을 통해 돌아본 이끼의 재발견
	무엇이 반짝일까?(2019) ■ 저자/곽민수 ■ 출판사/숨쉬는 공장	한 우주와 인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분류	도서명(출판년도) / 저자 / 출판사		책 소개
초등 (저)		뭐야, 지구가 떠났다고?(2019) ■ 저자/카타리나 소브랄 ■ 출판사/베들북	이 책은 지구가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린이 스스로 깨닫게 한다
		눈이 따끔, 숨이 탁! 미세먼지 (2019) ■ 저자/신방실 ■ 출판사/아르볼	마음 편히 숨 쉬며 살고 싶은 아인이와 함께 맑은 공기의 중요함을 깨닫고, 미세먼지 대응 방법을 찾아본다.
		팔팔팔 STOP!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소중한 물(2021) ■ 저자/남상욱 ■ 출판사/뭉치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회 현상과 과학적 상식을 함께 다루고 있다. 우리가 왜 물을 아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발휘된 것이다.
		돌아와 귀신 고래야(2020) ■ 저자/신정민 ■ 출판사/파란자전거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귀신고래의 일생과 고래잡이 장군의 일생을 교차로 보여주어 역사의 암흑기를 함께 살아온 인간과 고래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플라스틱이 온다(2020) ■ 저자/빅토리아 퍼즈 ■ 출판사/한울림어린이	사람들이 손쉽게 쓰고 버린 비닐봉지와 페트병이 바다거북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책
유아		내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2018) ■ 저자/토드 파 ■ 출판사/고래이야기	지구 환경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지구를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할머니의 용궁 여행(2020) ■ 저자/권민조 ■ 출판사/천개의 바람	바닷속에서 온갖 해양 생물을 만나는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림책

분류	도서명(출판년도) / 저자 / 출판사		책 소개
유아		꿀벌의 노래(2019) ■ 저자/커스틴 홀 ■ 출판사/북극곰	꿀벌의 미래를 위해 꿀벌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다. 『꿀벌의 노래』는 꿀벌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하는 그림책이다.
		지구와 물총새(2020) ■ 저자/이제발(임은숙) ■ 출판사/걸음동무	자신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존재들을 다치지 않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전한다.
		나무가 자라는 빌딩(2019) ■ 저자/윤강미 ■ 출판사/참비	숲이 사라지고 아파트와 빌딩으로 빠르게 채워지는 도시 문명에 유쾌한 반기를 든 윤강미 작가의 생태적 상상력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건축의 관계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준다.

2022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읽고 제안하기’

PART 2

2022년 SDGs 읽고 제안하기 우수 제안 선정



우수 제안 10선

※ 성명 가나다순

번호	성명	독서 감상문 / 정책 제안
1	김○애	먹거리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축산업, 농업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2	문○정	자연을 벗삼아 뛰는 즐거움
		자연과 함께, 러닝Go!
3	박○숙	매월 뛰는 데이~
		바르게 걷고 뛰고 싶은 창원 만들기
4	송○혜	'제주 허씨'를 위한 '제주학' 안내서
		창원을 친환경 생태 및 관광 및 문화도시로
5	오○래	소비자도, 생산자도 모두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 정착지원사업
6	이○리	함께 나아가는 세상
		점자표시 된 명함
7	윤○영	식탁의 계급화
		창원사랑상품권에 환경사랑상품권의 기능을 더하자
8	전○정	명품 창원시가 나아갈 방향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자!
9	최○호	알고는 있지만...
		학교 태양광 활성화 정책
10	황○선	부러움 너머 찾은 우리 도시의 희망 씨앗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외

우수 정책 1

이 름	김○애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탄소로운 식탁		
1. 읽고 느낀 점			
먹거리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육식만 줄이면 탄소 발생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육식 뿐만이 아니라, 채소나 과일 같은 농산물을 재배하는데도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축 분뇨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를 만든다. 브라질에서는 소를 키우기 위해, 아마존의 나무를 베고 있다. 농사에서는 물 담긴 논, 흙을 갈아 엮는 경운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그냥 갈아엮어진 땅, 고여 있는 물 자체가 탄소 배출원이다. 비료는 제조할 때도 다량의 에너지를 잡아먹지만, 뿌리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작물은 뿌리는 비료의 절반 정도만 받아먹기 때문이다. 농약도 제조할 때 에너지가 들어간다. 먹거리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식을 하자는 것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 고기나 채소냐를 선택할 게 아니라 먹거리 생산 시스템 자체를 탄소 중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소비자도 제철 과일, 제철 채소를 먹어야 한다. 비닐하우스 재배는 에너지 투입이 늘어가고, 탄소를 권하는 농업이기 때문이다. 농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막연히 유기농을 외칠 게 아니라 농사가 안정적인 생계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뻐야 팔리고, 팔리는 가격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마음인 시스템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줄이는 것도, 유기농 시장이 커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			
2. 관련 정책 제안			
축산업, 농업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농민, 축산업, 어업 종사자들이 고기든 생선이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생산 시스템을 탄소 중립적으로 바꿔야 한다. 단열을 잘해서 여름에 에어컨 없이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돈사 설치를 지원해주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가축 분뇨로 바이오가스 만들기. 축산 농가가 가축 분뇨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분뇨 바이오플랜트를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줘야 한다. 독일은 초창기 바이오플랜트를 늘리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했다.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값에 재생에너지가 거래될 때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전기를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심리적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다. 농민들에게 태평농법을 교육시키고 보급해야 한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가는 경운은 대지에 갇혀 있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가 더워지게 된다. 태평농처럼 땅에 물을 대지 않고, 씨앗을 바로 뿌리면 노동력도, 메탄 발생도 줄일 수 있다. 무경운 건답직파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만큼 농민들에게 탄소배출권을 줘야 한다. 미국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민이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다. 추수를 하고 토양 침식을 막는 피복작물을 심는 농가에 돈을 줘서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한다.			

이 름	문○정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뛰는 사람		
1. 읽고 느낀 점			
자연을 벗삼아 뛰는 즐거움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지며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 "걷기"였다.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 또한 "걷기 어플"을 깔고 무작정 걷다가 문득 "제대로, 잘"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관심에 베른트 하인리히의 "뛰는 사람"이라는 책을 찾게 되었는데 참 보물 같은 책을 발견했구나 싶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 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는 그를 보며, 그의 절반의 나이 밖에 되지 않은 내가 내 몸을 단련함에도,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데도 참으로 게을렀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의 글이 무엇보다도 반갑게 느껴진 것은 나 또한 어릴적 산과 들로 뛰어 다니며, 나무와 풀과 새들과 친숙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책 속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새들과 나무들과 곤충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내가 만지고 느꼈던 자연을 떠올리게 되었고 과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그의 동식물의 관찰을 통해 인간의 성장과 노화를 설명하는 방식도 참으로 흥미로웠다. 더 오래 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내 안의 생체시계를 발전시켜야겠다.			
2. 관련 정책 제안			
자연과 함께, 러닝Go!			
※ 대상: 전 연령 가능 / 개인 및 가족단위			
※ 달리기와 함께 자연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 대회 개최			
- 연1회 달리기 대회 진행 개인 및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달리기 코스가 적힌 지도와 함께 코스 내에 관찰할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제시함. 달리기 코스에서 제시되어 있는 동식물을 발견, 관찰하며 사진 촬영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제출, 최다 관찰자에게 시상.			
- 초등학생들에게 걷기, 및 달리지의 코스와 함께 코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원의 동,식물들을 제시 일정기간(몇 개월 단위 / 혹은 일년 동안) 코스 안에 동식물에 대한 관찰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학생 시상			
※ 어린 학생들이 "포켓몬 Go!"라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떠 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에게 창원시의 동,식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면 어떨까요?			

이 름	박○숙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뛰는 사람		
1. 읽고 느낀 점 매월 뛰는 데이~~ 달리기 선수이자 뿔속까지 생물학자인 베른트 하인리히의 80년 러닝 일지 "뛰는사람"을 읽고 있으면, 생물학에 대한 견해를 키우는 것인지,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몸의 변화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지식 습득을 통해 의학적 지식을 쌓아가는 것인지 줄 곧 달리기를 하는 것인지 정신없이 책장이 넘어가는 마술을 부리는 것 같다. 여직 읽어왔던 도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이 있다. 어려운 내용이 베른트의 러닝과 함께 달린다는 기분이랄까! 베른트가 달리고 있는 시점에 따라 생태학자가 되고, 의학도가 되고, 병리학자가 되어 수없이 탐구하는 인생이 힘들게도 보이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중간중간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체시계의 한계점들을 바로 보고 자연속에서 해결하는 모습은 책을 읽는내내 나를 점검하게 하는 멋진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서서히 다가오는 생체시계의 멈춤이나 기능 저하에 대해 대부분 의학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게 대부분이다. "뛰는 사람"을 읽으며 나의 이웃들을 위해 창원시에 살며시 제안해 본다.			
2. 관련 정책 제안 바르게 걷고 뛰고 싶은 창원 만들기 1. 탄소중립을 위한 차량 10부제 재시행 -기업인 출퇴근 10부제 프로젝트 -기업인 출퇴근 공유 차량 지원 프로젝트 -대형 쇼핑몰과 협력 쇼핑 10부제 프로젝트 -스스로 차량 10부제 프로젝트 -에코바이크앱을 활용한 차량 10부제 포인트 적립 * 앱에 10부제 참가 항목 추가 설치 * 10부제 참가 인증을 위한 사진파일 업로드 방법(고민고민) 2. 매월 뛰는 데이 지정 -매월 진행되는 길마켓 장소 주변의 차량통제구간을 정해 유아, 청소년, 시니어들이 편하게 뛸 수 있는 공간 확보 -매월 뛰는 데이 시작전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건강증진 현황 파악 및 데이터 수집 -매월 뛰는 데이와 매년 진행되는 우리 지역 마라톤 대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진행 -매년 뛰는데이 참여 후 건강 증진자에 대한 건강한 시민상 수여			

이 름	송○혜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1. 읽고 느낀 점			
'제주 허씨'를 위한 '제주학' 안내서			
이 책은 1990년대 전국 답사 신드롬을 일으킨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렌터카 자동차번호 '허'에서 따와 '제주 허씨'를 위한 '제주학' 안내서라고 소개한다. 이 책은 제주의 동서남북을 15편으로 구성하여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식물, 지질, 역사, 마을과 도로 등 숨겨진 제주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저자는 제주는 자연이 내린 축복이라 한다. 육지인에게 제주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제주인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자연적으로는 난대성 식물과 화산지형 같은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에는 한라산 뿐만 아니라 400여개의 작은 오름들, 160여 개의 용암동굴, 해녀, 제주마(馬), 돌하르방, 선사시대 유적지 등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한다. 저자는 제주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자연환경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주를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과 인물들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제주의 역사를 말해주는 탐라국의 삼성혈, 제주 4·3사건, 제주해녀항일기념탑, 한라산의 높이를 처음 측량한 독일인 지그프리트 겐테,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 삼별초 항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제주 역사 종합 설명서이기도 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저자의 말처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아도 서로가 느끼는 감동이 같을 수 없다. 제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그림 한 점이 담고 있는 구구절절한 사연 등, 그 속 이야기를 알고 나니 제주가 새롭게 다가온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 있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다.			
2. 관련 정책 제안			
창원을 친환경 생태 및 관광 및 문화도시로			
1. 창원의 공공기관의 옥상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전기 조달 2. 도로 방음벽마다 태양광 패널 설치 3. 나폴리나 산토리니처럼 진해와 마산 바닷가 쪽 건물들의 색깔을 통일 시켜 보는 것 4. 마을 공동체 형성-마을 공동 텃밭 만들기, 마을 단위 축제 활성화 5.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 유적지와 관련한 현대사 관광상품 개발 6. 일제강점기 마산, 진해 근대 문화 유산을 이용한 투어 7. 진해 벚꽃 축제와 천주산 진달래 축제 활성화-다른 관광명소와 결합하여 당일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며칠간 머물러 갈 수 있게 유도 8. 동읍 주남저수지, 용추 계곡, 달천계곡, 진해 생태공원 생태 관광 활성화 9. 창원 바다 둘레길 정비 및 홍보 활성화 10. 현대미술관 창원 유치 11. 창원에 전해오는 전설을 이용한 이미지 텔링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12. 창원의 미술가, 음악가, 문인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13. 시민을 위한 무료 인문학 강좌를 자주 실시			

이 름	이○리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v)
도 서 명	동물을 위해 책을 읽습니다		
1. 읽고 느낀 점			
함께 나아가는 세상			
최근 환경보호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육식하지 않기 또는 비건 레스토랑, 비건 화장품 등 동물을 보호하기, 또는 채식의 날을 지정해 환경보호 실천하기, 제로웨이스트 등 환경보호와 관련되어 많은 이슈들이 있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재생지를 이용했고, 아직 동물과 친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다. 어렸을 때부터 이유없이 고양이, 강아지 등 동물들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을 신기해하지 않았으며 가까이가지고 만지거나 부르지도 않았다.(물론 육식은 즐겨했지만.) 학창시절엔 내 시야에 동네 개들이 있다면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올 수 있게끔 했다. 사람들은 내가 개에게 물리거나 공포를 느낀 경험이 있을거라 했지만 내 기억상, 날 양육한 사람들의 기억상에도 한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다. 심지어 나의 양육자들은 내가 어린 시절 큰 개를 집에서 키웠으며 (나에게) 털 알레르기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키우고 싶어했다. 그러던 나한테 작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 마당에 고양이가 들어온 것이다. 새벽에 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고양이가 벽에 끼여있었다고 했다. 다친 고양이를 치료해주고 조금은 더 커서 공격받지 않은 크기가 되었을 때 나갈 수 있도록 먹이도 주었다. 고양이는 처음이라 동네마트가서 고양이에 게 좋은 사료를 사오고 간식도 챙겨주고 같이 놀았다. 집사로 간택당한 것이었다. 중성화 수술을 알아보았으나 조금 작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크면 해주려고 기다리던 차 고양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버렸다. 그때부터였나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이, 회사 근처에 있는 고양이들이, 산책길에 보이는 강아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끔은 고양이 간식을 챙겨가서 주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중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의 시간을 보냈다. 그 때 나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어울려서 사는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이 살아가는 법, 사회적 약자로서의 삶과 동물이 살아가는 법 등 책 속에서 나온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엮은 글이다. 종차별이 사라지고 각자로서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단순히 동물보호, 동물권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고 인권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줘서 좋았다. '동물학대자의 판결은 언제나 관대하다'라는 부분에서 동물학대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의 판결도 언제나 관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동물과 사회적 약자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약자,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생명, 즐거운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들이 꿈꾸는 정의롭고 올바른 세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물어본다.			

2. 관련 정책 제안

점자표시 된 명함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두 가지의 정책을 내고 싶습니다.

1. 창원시청공무원

- 명함에 소속, 이름, 전화번호만큼은 점자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가 비장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인 시각장애인분들도 알 수 있도록 명함에 점자를 표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창원시민

- 생명교육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인들을 위한 교육도 좋지만 반려인이 아닌 주민들도 다양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생명교육을 해준다면 신청해서 듣고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 강아지 등을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름	오○래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깻잎 투쟁기		
1. 읽고 느낀 점			
소비자도, 생산자도 모두 ‘사람’입니다			
저자는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삶에 특히 집중했지만, 사실 이주노동자는 도시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곳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자리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그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전에는 알음알음 여겨졌던 이러한 상황들이 일순 부족, 그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수면 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노동자의 삶이 각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는 기본적인 숙식을 제공받지 못함은 물론,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추가 수당은커녕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다수다. 한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어느 캄보디아인의 죽음은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게 했다. 그러나 죽음 이후 현재까지도 문제 제기만 될 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저자 우춘희는 우리가 그들을 사람이 아니라 인력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이 기피하는 자리를 채우는, 일종의 대체재로만 본다. 즉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의 결과물을 쉽고 싸게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은, 고용주, 정부, 우리 사회가 그들을 한 명의 사람으로 보면 해결이 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가 노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한국인 고용주가 한국인 노동자에게 하는 당연한 것들을 이주노동자에게 이행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해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깻잎 안 먹으면 되지’라고 쉽게 말할지도 모르나, 현실은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모든 것에 이주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으며 이는 먹고, 자고, 입는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밥을 먹기 전에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알고, 농부에 대해 감사함을 지니자는 오래된 식탁 위 관습처럼, 깻잎 한 장, 고기 한 점, 사과 한 쪽 등 내가 지금 먹고 있고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이주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음을 잊지 말자.			
2. 관련 정책 제안			
이주노동자 정착지원사업			
목적: 이주노동자가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해당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 내용: 월세 일부 지원 효과: 첫째, 비닐하우스 등 불법건물 내에 머무르면서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둘째,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고용주들의 부담 완화 셋째,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장기적인 노동 기대. 이는 고용주에게도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함 넷째, 주거비 공제 등 불분명한 이유로 인한 임금 체불 방지 다섯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거주지 및 체류 현황 파악 가능 및 불법 체류 방지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 가능 기타: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비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위와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 름	윤○영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x)	2021년(x)
도 서 명	모든 치킨은 옳을까?		
1. 읽고 느낀 점			
식탁의 계급화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지루하고 딱딱해 보이는 제목들 사이에서 치킨(!)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 나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의 책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손이 가고 읽기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본 책은 단순히 치킨과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일상적인 음식 전반에 대한 상식과 배경지식, 또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며 화두를 던진다. 특히나 내 머릿속에 와닿은 구절은 배양육을 설명하면서 나온 '식탁의 계급화'라는 본문의 내용이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좋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며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환경이라는 것을 누구나 누릴 수 없다. 흔한 말로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맛에(오히려 맛은 떨어질지 모른다) 비슷한 양인데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돈을 더 지불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야말로 지구를 지키는 일에도 개인의 경제력이 관여한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기도 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식탁의 계급화를 넘은 식탁의 세계화이다. 더 이상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치열한 자본 경쟁을 거쳐 선택된 산물들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식탁은 거대한 전쟁터이자 빈부격차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환경 보호, 동물권 보호'라는 숭고한 담론까지 넣자니 식탁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최소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정량배식만 하며,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품 사용을 의식적으로 지양하는 정도의 실천은 우리가 '계급'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2. 관련 정책 제안			
창원사랑상품권에 환경사랑상품권의 기능을 더하자			
창원의 대표적 지역화폐인 '창원사랑상품권'은 시민들에게 매우 익숙하며 판매와 동시에 매진되는 등 이미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화폐이다. 인프라, 즉 가맹점이 창원시내 거의 모든 음식점과 일상생활 쇼핑 영역에 골고루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비전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독특한 지역화폐인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이 있다. 매우 좋은 취지(고기 구매 시 용기를 들고 오면 서비스를 주는 등)와 20%의 높은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홍보와 <초록매장>이라고 하는 사용처도 많지 않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창원환경사랑상품권'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파편화된 화폐들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 또한 높다. 그렇다면 창원사랑상품권에 환경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넣는다면 어떨까? 방법 : 음료나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누비전으로 구매할시 5% 할인, 매장에서 자체 할인이 어렵고 불가하다면 양식화된 '인증'과정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캐시백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 수혜대상 : 누비전을 사용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창원사랑상품권 구매 시 기본 할인율 10%에 환경보호 할인율 5%를 더하여 총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이 름	최○호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o)
도 서 명	이제 전쟁 난민보다 환경 난민이 많대요		
1. 읽고 느낀 점			
알고는 있지만 ...			
이 책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라면 다들 아는 이야긴데, 어린이들이 알 기 쉽게 풀어 둔 책입니다.			
전기 아껴쓰기에서는 에너지 절전과 특히 친환경으로 오해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관리할 수 없고 몇백년을 폭발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안고 산다는 것이 말이되는지... 인간의 욕심과 자만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같아 걱정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핸드폰 오래 쓰기, 물건 덜 사기 나누어 쓰기 바꿔쓰기 착한 여행 떠나기는 저에게 더 많은 실천을 요구 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지원 시기가 오면 으레 신규 폰으로 바꾸거나 조금만 성능이 떨어져도 바꾸곤 했는데 서비스센터에 가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가 능할 수 있다 하니 다음엔 꼭 그렇게 실천토록하겠습니다. 물건 덜 사기도 꼭 필요 한 것 같아 사더라도 한번 쓰고 안쓰게 되었는데 지금도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사지만 열 번 이상 사용하지 않을 물건은 꼭 다시 생각하고 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착한 여행 또한. 일년의 한번이라 풀빌라 수영등을 생각하며 사용하곤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겐 식수 라는 것을 꼭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학교 태양광 활성화 정책			
창원의 탄소중립 방안이 여러모로 모색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소형 원자로를 이야기 하는데, 이 원자로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험하고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를 후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살자고(그 것도 위험하게) 후세대에게 쓰레기를 준다? 후손들은 우리를 원망하고 또 원망할 것이다.			
그렇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학교마다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억측과 오해들이 많아 학교현장에 설치하고 싶어도 학교 구성원 중 학부모회에서 반대, 교장의 반대 등이 있어 설치가 어려운데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각 학교마다, 동마다 또는 언론을 통해 제대로 전달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 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대해 꼭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인식 증진 해야 할 것이다.			
2030년까지 , 2050 까지 탄소중립은 꼭 실현되야 할 것이고 우리 나라는 그 선언을 한 바 있다. 창원도 우리 시민이 살기 위해 이 제안을 꼭 들어주길 바란다.			

이 름	전○정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1. 읽고 느낀 점			
명품 창원시가 나아갈 방향은 도서관이다!			
나는 이사를 갈 때마다 도서관가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도서관 가는 걸 즐기게 해 주고 싶어서였다. 용인에 살 때 민간이 투자해서 만든 기적의 도서관이 바로 아파트 옆에 있어서 자주 갔었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서 다락방이랑 계단 밑에 방은 인기가 좋았다. 실내 그네를 타면서 책을 읽어도 되고 책을 읽다가 나무블록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무엇보다도 꼭 조용히 해야 하는 게 아니라서 항상 아이들이 많았다. 김해 장유에 살때도 기적의 도서관 1층은 아이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자기 맘에 드는 구석에 앉아서 책읽는 모습. 도서관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도서관은 시험 공부하는 곳이라서 조용히 해야 하고,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서 항상 위치가 불편하다. 팔용동 살때도 고향의 봄 도서관의 가파른 오르막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이를 독려하면서 가려니 잘 안 가졌다. 마산에 와서는 멀어서 더더욱 안 가진다. 시설도 노후하고 인테리어도 별로고 아이랑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도시 중심, 역세권, 쇼핑몰, 중앙광장에 위치한 도서관, 스튜디오나 놀이공원이 있는 도서관 등 북유럽의 멋진 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나니 우리 나라 도서관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우리에게 북유럽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의 중심의 도서관, 다양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새롭고 멋진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 도서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가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인 곳이다.			
2. 관련 정책 제안			
도서관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자!			
도서관은 더 이상 단순히 시험공부와 책을 잠시 읽거나 빌리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도서관의 목적은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사회발전을 위한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바뀌어야 한다. 첫 번째로 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서다! 도서관법대로 우선 도서관장을 사서로 해야 한다. 행정직이 쉬어가는 곳으로 하면 안 된다. 사서들이 평생직장으로 있으면서 타시나 다른 나라의 도서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 도서관을 가장 멋진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도서관을 설립 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도서관 관리직, 공무원, 시의원, 설계사 모두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목표로 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도서관을 새로 만들기에는 시간,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현재 표류중인 팔용동 SM타운 한층에 공공도서관이 들어간다면 어떨까? 지금 당장 창원시에서 설치가능한 지역으로 북유럽처럼 도시 중심, 버스터미널 옆, 마트 옆,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고, 공연도 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것 같다. 도서관을 새로 짓는 공사비보다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지역사회 기부로 임대료 할인을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세 번째로 동네의 작은 도서관의 야간, 주말, 공휴일에 사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내가 어릴때랑 비교하면 도서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 건 맞지만 여전히 우리의 도서관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동네마다 있는 작은도서관은 주말이나 휴일에 문을 닫는 곳이 많다. 나처럼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필요하므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 00요일은 야간운영” 같은 게 필요하다.			

이 름	항○선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1. 읽고 느낀 점			
부러움 너머 찾은 우리 도시의 희망 씨앗			
한마디로 부러웠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옆에 위치한 네덜란드 알미르 새로운도서관, 대형 쇼핑센터 옆에 있다는 런던의 도서관 등 유럽 도서관들의 공통점인 접근성에 대한 대목에선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창원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창원중앙도서관, 고향의봄 도서관 등 창원시내에 있는 대표적인 큰 도서관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을 때마다 ‘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곳에 지었을까?’ 하며 불멘소리를 하곤 했다. 큰 마음먹고 찾는 건 둘째치고 대출한 책까지 들고 대출, 반납을 하려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자가용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겐 별일 아니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설이 좋아도 왕래가 불편하니 이용 횟수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한편으론 창원에는 마을 가운데 마을 도서관이 있고, 책두레 서비스까지 가능하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도서관이다. 나도 도서관을 꽤 이용하는 편이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우리 마을도서관은 2층이라 아예 휠체어 이용자는 찾아올 수조차 없는 구조다. 우리 마을도서관만 그러할까. 창원 시내 모든 도서관의 상황을 따져보고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평등, 배려, 자유 등 모든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이민자 등 약자, 소수자를 생각하는 데서 선진국의 의식 수준을 고스란히 배울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책이 주가 아니라 부수적이어도 된다는 대목도 인상 깊다. 우리 마을도서관만 해도 초등학생들은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책도 많이 빌려보다가도 어떤 일인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발길이 끊긴다. 책과 멀어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와 멀어지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란 걸 책을 읽으며 알 수 있었다. 한창 모여서 떠들고 싶을 나이에 정숙을 요구하는 도서관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모여서 온갖 시도와 모험을 하며 사고와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꼽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링도서관의 붉은색 리본처럼 오로지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나이 때문에 제외 대상이었던 청소년이 반대로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다면 어린시절 꿈꾸던 다락방 같은 비밀 공간처럼 흥미로울 것 같다. 책장을 덮으며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복지 정책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 위안이 되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식 수준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다. 그 바탕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사고의 폭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와 평등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빛을 발휘한다. 그 생각도 당연히 함께 나누고 키워야 할 것이다.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가 인사가 되는 사회를 꿈꾼다. 시설의 현대화로 화려함을 좇을 게 아니라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변해가는 우리 도시의 도서관을 욕심내게 되었다. 멀리, 길게 보고 오래 걸려도 천천히 ‘결국 책’을 찾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창원에는 곧장 달려가도 되는 마을도서관이 있으니. 더 깊이, 더 가까이 있는 강점을 살렸으면 한다.			

2. 관련 정책 제안

1.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청소년이 도서관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상	청소년(14세~19세)
주제	도서관에서 노는 청소년
기획의도	현재 어린이나 유아를 위한 전용 공간은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따로 없다. 창원중앙도서관에 '다락'은 12세 이상 이용 가능한 곳으로 청소년만의 공간이라 보기 어렵다. 시립도서관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또래 아이들이 즐기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시립도서관에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도서와 연관된 프로그램 월 단위로 운영 예)싸이퍼(탁경은 저)를 읽고 랩으로 노는 아이들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이금이 저) 읽고 근현대사를 연극으로.
운영	프로그램은 참가 아이들의 추천과 투표로 선정

2. 한 마을 한 책 읽기+한 학교 한 책 읽기

: 매년 진행되는 한 마을 한 책 읽기를 인근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3. 창원시도서관 앱에 마을도서관 위치 표시(1층, 2층 구분, 휠체어 이용 가능 유무)

2022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읽고 제안하기’

PART 3

시민 참여 제안지 모음



이 름	강○선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2년(0)			
도 서 명	뛰는 사람					
1. 읽고 느낀 점 달리기로 돌아보는 인생 ※ 글자 크기 10pt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물학자이자 80대가 된 베른트 하인리히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80세에 출전한 100마일 달리기에서는 12시간 27분 02초의 기록으로 US오픈 신기록을 기록했고 24시간을 쉬지 않는 달리기 대회에서도 신기록을 기록하게 된다. 그 외에도 많은 대회에서 그는 놀라운 결과와 기록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무조건 달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건강, 직업 등 때문에 달릴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생체 시계의 지시에 순응해 닥친 일을 받아들이고 남겨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달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꼭 달리지 않아도 되니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달리기처럼 꾸준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제목 때문에 단순히 달리기의 이점만을 강조한 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달리기를 통해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좋은 책이었다. 책을 다 읽고 나도 베른트 하인리히처럼 진해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달리기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숨이 벅찰 때까지 달리면서 인생, 자연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며 베른트 하인리히처럼 현명하고도 알찬 삶을 살아야겠다.						
2. 관련 정책 제안 걷기 기회 만들어주기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진해는 해양공원, 장복상 공원 등 산책할 자연 공간이 많다. 누비자앱이나 누비고앱을 활용하여 일정 km 이상 달리기/걷기를 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떨까. 적립된 포인트로 누비자앱 일일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거나, 누비고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쓸 수 있게 된다면 이용자수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달리기 또는 걷기와 함께 인생, 자연의 섭리 등을 돌아볼 수 있는 산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름	김○주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뛰는 사람		
1. 읽고 느낀 점 생체시계에 맞춰 달리면서 자연의 신비를 밝히는 과학자 생물학자인 베른트 하인리히는 달리기를 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한다. 모든 동식물에게 시간 감각이 존재하며, 그 감각이 모든 생명현상을 지휘한다. 우리는 삶을 조절하고, 어쩌면 노화 속도와 수명까지 관장하는 생체시계를 장착하고 있다. 꽃 피우는 하루 주기, 동물의 동면, 인간의 겨울 우울증 모두 생체시계에 따라 일어난다. 생체시계는 생물의 생리와 행동을 조절하고 예상되는 환경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 모두는 진화적으로 선택된 사냥꾼이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진화적으로 사냥에 능한 형질특성이 선택받았다. 베른트 하인리히가 어린 시절부터 자연 속에서 동식물을 관찰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작은 곤충이라도 각자 살아가는 규칙과 세계가 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이 우리의 수명을 늘린다. 자연의 규칙을 존중해줘야 한다. 자연 안에서 모든 존재가 동등한데도 인류는 여전히 지구가 오직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양 행동한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연에 맞서기보다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인 자연에 소속되어야 한다.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달리기는 건강한 몸이 되게 하고, 자연을 느끼게 만들며, 자연과 가까워지게 한다. 또한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한다. 2. 관련 정책 제안 현대인의 정신적 무력감과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한 달리기 모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자살, 만성 통증, 비만, 불행감의 유행이 시작되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현대 생활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기계에 둘러싸인 채 끊임없이 변하는 요구를 따라잡지 못해 느끼는 좌절감에 있을지도 모른다. 늘어나는 세금,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앞에 밀려오는 무력감, 한없이 늘어나는 인구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진하고 활용할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상황은 계산에 넣지도 않은 것이다. 이 증상들은 실험용 우리에게 갇힌 쥐와 비슷하다. 원래는 야생에서 활발하게 찾아다녀야 얻을 수 있던 먹이를 항상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된 바람에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원래 설계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쥐와 사람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창조된 목적을 잃고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결핍을 느끼며 정상적인 심리적, 생리적 영양소가 소실된 것이다. 창원에도 달리기나 등산, 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면 이런 정신적 무력감과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야외 스포츠다. 함께 산길을 달리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서로를 결속하게 만드는 도전과 자연, 자연의 아름다운 장관을 휘감아 도는 힘겨운 코스를 끝낸다는 동일한 목표 아래 저절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집단이 만들어진다. 달리기에서 노력하며 서로를 격려한다. 타인의 행복은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이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걸맞게 달리기, 운동을 창원 시민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름	김○현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오늘의 에코 라이프		
1. 읽고 느낀 점 우리 주변에서 찾은 탄소중립 실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나라마다 정책적으로 실행할 방법들을 구안을 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지금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 사용, 소등 불끄기 등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아직까지 탄소 중립의 실천이 와 닿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 우리 생활 속에 환경 오염을 줄일 만한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하여 마침 이 책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소한 행동 일 지라도 작은 실천을 하게 되면 이는 나비 효과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도 있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일이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어 모르는 사이에 탄소 배출량 증가와 환경 오염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을 어떻게 하면 덜 쓸 수 있을까, 화장실 청소, 옷을 입고 빨래할 때 등, 책을 펼쳐 보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생활 속 공감되는 내용들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지침서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나부터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새로운 구입 물품들이 나오는 시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책을 기반으로 내용들을 보편화 하여 우리 사이에 스며 든다면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 관련 정책 제언 책을 통한 생활속 실천 탄소 중립 보편화하여 강연 및 활동 하기 책으로 미리 알게 되어 탄소 중립을 위해 실행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실천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먼저 방안들을 볼 수 있지만 현재 살아가는 사회 활동 등,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하여 아나바다 벼룩 시장을 만드는 거도 좋을 거 같습니다. 어플로 당근 마켓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대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불안정함도 있을 거라 여겨 집니다. 직접 프리마켓을 열어보고 직접 물건을 볼 수 있기에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물건을 사더라도 중요한건 사기 전에 필요한게 무엇인지 정하고 옷장과 서랍등 물건 등을 정리해 보는 일입니다. 이 습관이 가장 기본이라는 걸 알아야 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도 되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습관도 기르게 됩니다. 어린 친구들도 환경 운동을 실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일들을 강연하고 실행 할 수 있다면 더욱 많은 관중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이 름	김○진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사회적 농부		
1. 읽고 느낀 점			
국가와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공동체 농업, 사회적 농업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농부'는 문화경관 직불금, 가족농, 농업학교,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의소, 유기농업,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가와 정부의 돌봄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받으며 돈 버는 농업이 아닌 사람 사는 농촌을 위한, 농부의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농부라 할 수 있다. 농민이 농촌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버틸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 독일은 농가마다 농업소득의 80퍼센트를 직불금으로 보전받는다. 직불금 제도로 농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농업과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한다. 독일의 직불금 프로그램은 유기농, 환경 보호를 추구하고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목적을 두며 효용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농가는 90% 넘게 2대가 이어 농사짓는 가족농이다. 또한 농가를 직접 찾아오는 손님에게만 판매하는 직판을 원칙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다. 농산물 생산 뿐만이 아니라, 딸기 수확 체험, 농가 민박 체험 등 3차 농촌 체험 프로그램만으로도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 농촌도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을 살려 자립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농협은 농민 소득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농협이 돈 버는 신용사업에 매달려 있다. 심지어 농민이 아닌 도시민을 주거래 고객으로 삼아 이자 수입에 열중하고 있다. 독일의 라이파이젠 농민은행처럼 경제 책무보다 사회 책무를 더 강조해 협동조합으로서 애초 가진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정책 제안			
사회적 농업을 위해 한국에 필요한 정책			
농사가 지닌 고노동-저수익형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직불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직불금 제도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지원하려는 농민생활보장 정책이다. 독일의 직불금 예산 지원은 유럽연합 50%, 독일 정부 30%, 주 정부 20%로 분담한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직불금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직불금 제도는 농지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농지를 많이 소유한 일부 대농에게 이익이 편중될 뿐이다. 농가 단위로 기본소득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민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 농업회의소는 직업교육, 농업 경영과 기술 지도, 인증, 행정 지원처럼 농가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독일에서는 농부가 되려면 농업학교부터 다녀야 한다. 아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농업 마이스터를 키우는 독일 농업전문학교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서 농업직업학교를 많이 세워야 한다. 농촌에서 먹고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비롯해 재해보험, 의료보험, 간병인보험, 노령보험 같은 사회보장 체계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			

이 름	심○보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사회적 농부 모두의 농업 모두의 농부		
1. 읽고 느낀 점 전세계 모든 국가는 농부가 있다. ※ 글자 크기 10pt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촌 공동체이야기 최근 다양한 협동 조합들이 있다. 나도 마을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 이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의 사회적 농부는 일반 기업들의 자본위주의 돈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형태가 아닌 사람이 갈아 가기 위하여 서로 필요한 점을 채워주고 같이 협동하고 같이 주체가 되어 가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것 같다. 농민은 경제 인구의 매우 작은 2%밖에 되지 않지만 국가 기반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전세계 적으로 농업 인구는 점점 줄어 들고 있고 농업에서의 식량이라는 자원은 훗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처럼 언제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한국도 농업 기반의 협동조합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현재재 한국의 농업기반과 비교를 하며 읽게 되었는데 시장이라는 경쟁보다 식량이라는 공공재로 받아드려 농업에 대한 불안한 생활환경보다 존중받고 안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2. 관련 정책 제안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1. 농업협동조합지원 - 유통구조 지원, 마케팅지원 - 농업 과 기업 연대 지원 (EX 과일 - 휴롬 연계 판매)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축제 부스 지원(장소 뿐만이 아니라 알바생 지원)			

이 름	김○옥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0)	2021년(0)
도 서 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1. 읽고 느낀 점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추수밭)에서는 21세기 벌어질 전 지구적 기후재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50년에 기후난민의수가 최대 10억명 돌파, 여름철 최고기온이 평균35도씨 이상인 도시가 970개까지 증가, 폭염으로 전 세계에서 25만 5,00명이 사망..등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대량 학살의 위기임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셸러버거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보고서의 내용을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 수준에 비해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를 넘어서면 세상이 멸망한다거나 문명이 붕괴할 거라는 이야기를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3장 플라스틱 탓은 이제 그만하자]에서는 선전국가들이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면 가난한 국가들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 개선을 도와야 한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 해수면에 떠 있는 모든 크기의 플라스틱 쓰레기 총량은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0.1 퍼센트에 지난지 않으며 그들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100분의1 수준으로 적었다. 이 원인은 첫째 작아질수록 플라스틱은 더 빠른 속도로 분해되기 시작하며 산화되는 정도가 커질수록 생분해의 가능성 또한 커진다. 둘째로 해양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배설물 덩어리로 뭉쳐서 가라앉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바다에서 대형, 중형 미세플라스틱이 어떠한 동역학으로 분해되는지 탐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마이클 셸러버거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 실천에 대해 기후위기로 인한 종말은 없으며 자연은 회복되고 있으며 지구를 위한 행동인 채식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자연을 파괴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 비행기를 타지 않는 그레타툰베리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였으며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켜 밀도가 높은 에너지원을 쓰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이로운 일이며 궁극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결과는 낳는다고 주장의 환경 휴머니즘은 인간은 중심으로 생태를,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인간은 지구의 생태계의 일부이며 한 종에 불과하며 생명그물을 이해하지 못한채 사람을 이해하는 단편적이고 종합적인 지구적 사고를 하지 못한 지은이와 과학자들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 름	송○아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1. 읽고 느낀 점 우리가 망치고 있는것들 ※ 글자 크기 10pt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주제가 환경, 정치, 경제, 사회, 시사 등 여러 문제가 있으며, 그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전 자연보호에서 지금은 지구보호로 경제발전과 함께 온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우리생활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다. 소리높은 주장한다고 지구를 구할 수는 없다. 현실에 근거한 방법이야 말로 자연뿐 이나라 인간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사실에 근거한 접근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혹시 나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 우리가 망치고 있는 것들 알고 있다면 올바른 해결책과 개선점을 서둘러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2. 관련 정책 제안 길거리 대첩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푸드트럭 운영자 및 창원시민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해양누리공원에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길거리 푸드트럭 음식 경진대회를 개최 - 입상된 푸드트럭에는 주말에 트럭 운영권을 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푸드트럭이 모이기 마련이다. 무분별하게 모여드는 푸드트럭으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창원시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면 지속적인 자원순환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됨.			

이 름	김○아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두 번째 지구는 없다		
1. 읽고 느낀 점 행복을 위한 환경보호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열한다. 그리고 저자가 자원을 아끼는 이유, 우리도 실천해야 할 이유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다. 환경보호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나지만,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많은 쓰레기를 배출했었다. 나의 행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과연 내가 버린 쓰레기로 나의 행복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편안함만이 나의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사실 이 책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다면 읽지 않을 것 같다. 이 책은 이미 지구변화를 눈치챘거나, 심각성을 느낀 사람에게 흥미가 있을 것이고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의 모든 선택에 환경이 중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			
2. 관련 정책 제안 창원시기업 탄소적립 -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서 적절한 기준선을 넘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기준선이하거나 배출 감소를 이룬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준다.			

이 름	김○경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1. 읽고 느낀 점			
언제든 가고 싶은 도서관을 꿈꾸며			
책을 읽는 동안 북유럽의 도서관을 함께 여행한 듯한 기분이었다. 북유럽의 도서관이 소개될 때마다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떠올랐다.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모습과 북유럽 도서관의 장점이 같을 때마다 노력하고 발전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는 도서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최근 창원시에 있는 도서관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도 리모델링을 마친지 1년이 넘어 최근 1년 동안 이용하면서 기존과 달리 밝고 편안한 시설에 자주 찾고 싶은 생각이 들어 평일에도 쉽게 찾아가기도 한다. 책에서 공감되는 부분은 어릴 때는 책을 읽던 아이들이 청소년기엔 덜 읽게 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공감하게 된다. 영유아기, 초등학생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청소년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다. 북유럽처럼 10대를 위한 공간이 있다면 독서문화가 만들어지고 도서관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도서관 위치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중심지에 있다는 점이 가장 부러웠다. 외곽지, 산 밑이 아닌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창원의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마음먹고 찾아가는 곳이 아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서가에 빼곡히 꽂혀있는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될 게 아닌가. “엄마, 오늘 도서관에 갈래요.”라고 아이들과 함께 자주 도서관을 가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2. 관련 정책 제안			
구건물 활용 / 도서 판매 / 청소년 동아리 확대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마산 양덕동 구축 야구장 활용하기 – 구축 야구장처럼 넓은 부지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북유럽처럼 접근성도 좋고 주차편의시설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평지에 있으니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다. 북유럽처럼 1층에 도서반납기, 카페를 운영하고 2층에 도서시설을 갖춘다면 넓은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연말에 도서관에서 더 이상 보관하지 않는 도서 판매하기 – 도서를 판매하는 부스가 있다는 것이 신선했다. 무료 배부 행사는 있었지만, 더 이상 보관하지 않는 도서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야말로 중고서적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판매 수익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 동아리 확대 - 10대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독서동아리 뿐만 아니라, 취미활동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케이팝 댄스, 유튜브 촬영하기등 실제로 10대들이 좋아하는 활동과 관련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름	박○준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1. 읽고 느낀 점 동네 도서관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도서관은 좀 오래된 건물의 도서관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딱 책 보관소 같은 도서관. 어른의 경우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그 기능만 생각한다면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라도 하나 있으니 없는 것 보다 좋지만,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유아/어린이 자료실이 있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너무나 딱딱한 곳이다. 그냥 여러 책장들이 줄 세워져 있고 책만 보관되어 있는 그런 책 보관소. 어린 나이부터 책이란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놀면서 접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도 책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사회구성원의 독서량이 많아지면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될 것 같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였는데 도서관에도 영아/ 유아 등 아이들 나이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여 호기심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책과 친해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2. 관련 정책 제안 아이 놀이도서관 어린 아이들의 책과 친해지는 역할은 아직 부모에게 그 역할이 대부분 주어진 것 같다. 사회에서도 아이들이 책에 즐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아이들 나이에 맞게 놀이공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놀면서 책과 친해 질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복합문화 공간 같은 도서관을 시도한 곳은 몇 군데 있으나 전체연령대를 대상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막상 가보면 복잡하고 정신만 없는 것 같다. 도서관에서 영아, 유아 별로 나누고 공간의 테마별로 나누어 아이들의 성향과 나이에 따라 놀면서 책과 친해지고, 호기심을 유발하여 학습욕구를 만들게 하는 등. 도서관이 지금까지 책장에 책을 보관하고 빌리고 반납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름	정○란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2년(0)
도 서 명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1. 읽고 느낀 점

입체적인 꽃의 세계

※ 글자 크기 10pt

나에게 꽃은 그저 소소하고 평면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를 읽고 처음으로 꽃에게 입체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음을 깨달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할미꽃이었다. 나에게 할미꽃은 어릴 적 전래동화에서 읽은 것처럼 할머니를 상징하는 수동적이고 애처로운 꽃이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할미꽃이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꽃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흐의 그림에서 언뜻 보았던 아몬드꽃이 동시대 화가들의 그림에 많이 등장한 뮤즈와 같은 존재였으며 따사로운 이상향을 상징하는 로망과 같은 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스승과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카네이션이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혁명을 의미한다는 사실 또한 놀라웠다.

이 책은 전래동화를 통해 만들어진 꽃의 평면적인 이미지를 깨고 입체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진해에 사는 만큼 봄이면 벚꽃을 비롯한 수많은 꽃들을 만나게 되는데, 꽃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꽃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좀 더 입체적인 시각으로 꽃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2. 관련 정책 제안

진해의 벚나무 제대로 알기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저는 고등학교 시절, 어느 한국지리 문제집의 지역 소개란에서 “진해의 벚나무는 일제가 심은 것이다. 일제의 잔재인 벚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씁쓸하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해는 해방 후 일제가 심은 벚나무를 모두 뽑아버리고 우리나라 토종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문제집으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진해의 벚나무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진해의 벚나무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벚나무에 대한 뜻깊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진해 벚나무가 우리나라 토종 벚나무이며 벚나무에 관한 재미있는 설화, 벚나무의 특성 등을 담은 안내판을 벚나무 명소에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진해의 명소인 편백나무숲과 로망스 다리 등에도 그곳에 사는 장미, 편백나무 등 식물의 유래, 효능, 설화 등을 담은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벚나무를 찾아 진해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벚나무와 꽃, 나무에 대한 깊은 정보를 제공하면 진해의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도 올라갈 것이며 관광객들에게 충성한 지식을 제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름	노○순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x) 2021년(x)
도 서 명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1. 읽고 느낀 점 꽃이 전하는 이야기 난 오늘도 꽃 가게의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여러 가지 꽃들을 마음속에 담고 왔다. 사랑을 전할 때나, 슬픈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을 전할 때도 사과할 때도 꽃을 내밀며 마음속의 메시지를 전한다. 책에는 봄을 알리는 꽃 데이지, 수선화, 백합, 카네이션 여름에는 꽃가게가 필요 없을 만큼 흔하지만 찬란한 여름처럼 화려한 장미, 연꽃, 목화, 해바라기, 내게는 모든 게 씩씩하다<샤를 보들레르-가을 노래>한해의 환절기인 가을 9월에 피는 보라색의 사프란, 국화, 메리골드, 양귀비 잔인한 계절 겨울 백 년 전에 진정한 향기로 호사의 상징 이었던 제비꽃, 제라늄, 스노드롭, 아몬드, 계절마다 피는 평범한 꽃들로 엮어낸 이야기로 꽃이 유약하고 섬세한 이미지와는 달리 전쟁, 외교, 혁명, 투쟁과 연결되고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학, 미술, 종교, 역사, 신화 속으로 투영되기도 하고 16가지의 꽃으로 사랑과 죽음, 예술과 패션, 종교와 정치, 음식과 영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간 지은이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며 난 내일은 꽃 가게의 창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꽃의 향기를 맡으러 직접 안으로 들어가련다.			
2. 관련 정책 제안 꽃과 함께 ※ 창원시민 ※ 창원시 읍/면/동 으로 나눠 특색있는 계절 꽃을 선택, 지역민, 학생, 지역 봉사단체, 이장, 통장등 민관이 함께 각 동에 특화된 꽃을 거리거리에 이름표를 달아 심고 관리도 지정을 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원시 어느 거리를 가도 잘 관리된 꽃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름	최○민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1. 읽고 느낀 점 계절마다 피는 꽃 이야기 한국은 4계절이 있다. 온난화로 기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4계절을 모두 맛 볼 수 있는 나라이다. 기온에 따라 피고 지는 꽃도 다양하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계절이 바뀌어 다른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 민감해졌다. 꽃의 용도는 축하나 어떤 일에 의미를 가지고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 물론 인간사에서는 애정 표현에도 필수인 것이 꽃이다. 이 책에는 그런 일반적인 꽃의 모습보다 역사 속에서 꽃의 역할 의미를 짚어 본다. 봄에 피는 카네이션은 공경과 효의 모습보다는 혁명의 상징이었다. 여름에 피는 장미는 지금의 도도함과 아름다운 이미지 보다 매춘부의 상징이었다. 가을에 피는 국화는 평화, 사랑과 이해 보다는 강화된 일본 제국의 힘을 상징했다. 겨울에도 꽃은 피는데 제비꽃이 있다. 제비꽃은 겸손이나 순수함의 상징으로 해석하지만, 고대에는 보라색 제비꽃이 성적 즐거움과 관련이 있었다면서 흰 꽃만 겸손이나 순수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책에서 알게 된 것은...꽃은 식물의 번식기능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눈길을 끌어야 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냥 시선을 빼앗겼었는데,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여성들이 꽃을 좋아한다는 것도 아주 옛날부터 여성과 꽃을 연관지어서 해석이 많았던 것에 영향이었을 듯 싶다.			
2. 관련 정책 제안 꽃 축제의 의미를 재고해 보자. ※ 벚꽃 축제 일본의 식민지 시절부터 벚꽃이 번성했던 진해는 벚꽃 축제가 열린다. 요즘은 사진을 찍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있지만 각 나라의 벚꽃 축제나 인문학적인 의미를 가진 강연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국화 축제 마산 국화 축제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랐었다. 규모에 놀라고 향기에 놀란다. 그냥 물리적인 전시에만 힘을 줄 것이 아니라, 국화를 소재로 한 역사, 국화차의 기원, 국화 역사도 함께 알리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 학생들 교육에서 꽃 축제를 관람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생물학적 번식을 위한 꽃의 역할, 그리고 현재 사라져 가는 꿀벌이 꽃의 생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함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름	박○희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깻잎 투쟁기		
1. 읽고 느낀 점 식탁 위 먹거리의 다른 얼굴 매일 만나는 우리의 식탁 위 먹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거친다는 사실을 나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여러 매체에서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는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 어디에도 농장에서 일을 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루 2시간 공짜 노동, 열악한 주거공간 등 내국인이라면 하루도 못버티고 도망쳤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국인은 보호 받았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법은 있지만, 그들은 제도 자체를 알기 어려우며 알게 되더라도 큰 결심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선뜻 보호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친척 중 생업으로 농사를 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도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일구고 계셨다. 이 책을 읽기 전엔 '이주노동자들이 밭에서 일을 하구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친척의 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궁금해졌다. 우리 사회는 아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모르는 것엔 무심하다. 우리 모두가 이주노동자들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다.			

이 름	조○미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1. 읽고 느낀 점			
사람의 삶과 꽃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2022년 9월 28일 논 가장자리에 야생나팔꽃, 계란꽃, 해국, 도깨비바늘 등 야생꽃 볼거리가 한창인때 라 창원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주최 SDGs4 시민올라인 독서교육 <책 읽고 제안하기> 추천 도서목록 중 유독 눈에 띄는 책이었다.			
꽃은 자기가 가진 아름다움으로 무장하여 색깔, 모양, 잎, 가시 등으로 사람의 생각,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시작, 끝, 사랑, 질투, 증오, 만남, 이별, 축하, 위로, 위안의 모든 복잡한 감정을 상 대방에게 전달 할 수 있다.			
이 책은 꽃이 가진 눈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매력을 활용하여 인간과 꽃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의 전쟁, 외교, 혁명, 투쟁, 문화, 음식,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이 책은 단순한 꽃의 특징을 전달해 주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기에 세계사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다소 읽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책에서 설명해주는 꽃의 특징을 상상하며 머릿 속으로 꽃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을 읽는 동안 재미가 있을 것이다.			
2. 관련 정책 제안			
꽃과 향기를 읽어주는 사람들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주요 수혜자: 시각장애인			
-수혜 내용: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청각, 촉각, 후각을 통해 꽃을 느끼고 상상하고 세계사 해설을 들으며 견문을 넓힌다.			
※ 추진 방법 등 사업실행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추진 방법: 책에서 설명하는 4계절의 대표적인 꽃이 있는 장소 견학			
-사업실행 가능성: 꽃의 아름다움을 전달 할 수 있고,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강사분이 계시다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추진 결과: 좋은 꽃은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좋은 향기로 기억에 남는다. 시각장애인분들에겐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이 머리속에 그려질 테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비장애인처럼 꽃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즐겁게 할 것 이다.			
또한, 꽃과 사람들이 얹힌 세계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꽃에 대한 이야기가 또 새로운 삶에 대한 힘찬 원동력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란 꽃을 활짝 피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다만 늦게 피는 꽃이 있을 뿐입니다.”			

이 름	박○수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로컬로 텀!	
1. 읽고 느낀 점 도시? 시골?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로컬로 텀!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지방 소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다. 이 책은 일본에 대한 사상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난 자본주의를 좋아한다. 서로 경쟁을 통해 더 발전하고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받기를 원치 않아서 로컬로 이동한다? 각자 취향에 맞게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말처럼 정 상경 제체제에서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농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청년의 지역이 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곳에서 본인들의 특색을 살려 청년 농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본주의적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접한다. 글로벌화를 비판하며 로컬화를 원하는 생각이 맞는 것일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도시는 도시의 모습으로 시골은 시골의 모습으로 알맞게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 소멸, 인구 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는 로컬로 돌아간다고 해결할 수 없다. 도시에서도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 있고, 은퇴 후에 귀농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도, 로컬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 관련 정책 제안 청년농부 지역을 살리자.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며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라고 하면 청년들이 이주할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은 일자리다. 시골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정부에서 교육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찾게 해주는 건 어떨까? 도시생활보다는 시골생활이 적성에 맞고 농사일에서 흥미를 느끼는 청년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재능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듯하다.		

이 름	신○진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바다 인문학	
1. 읽고 느낀 점 전체적인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하여. 평소 환경에 대하여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분리배출 잘하기와 같은 규칙이 정해져 있는 행동에서만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왔을 뿐. 이 책을 펴낸 저자는 지역적 특성과 생물의 크기에 관하여 조사한 부분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나타내주었으며, 외부 문헌들을 참고하여 섬세하고도 적나라하게 환경상황을 전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어획을 할 수 있었던 생물들이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더 이상 어획을 할 수 없고, 채취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책에서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생물 파괴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환경문제들은 곧 지구촌에 함께 살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관련 정책 제안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창원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규칙을 정하고 협력해야만 환경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월 1회, 또는 2회 이벤트성 행사를 열어 연안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한다.		

이 름	유○자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바다인문학		
1. 읽고 느낀 점 '바다물고기 이야기' '바다 인문학' 책은 바닷물고기와 지역문화와 생태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상 속 바다 음식을 어민들의 삶, 문화와 기후변화의 사례로 엮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바닷물고기가 차지하는 문화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릴 적 먹었던 흔하디 흔한 명태 조림과 비 오던 날 엄마가 해주시던 명태전은 이제 추억 속 음식이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역마다 사라져가는 바닷물고기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실 역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다가 사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인문학'을 읽고 바다 생물의 다양성 유지와 수질정화 및 해양 환경 유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갯벌이나 바다를 지키는 것이 어민들의 몫만이 아니란 걸 우리 모두 알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대륙붕이 발달하지 않아 해류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고 대륙붕이 발달하여 조석과 조류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바다 인문학'은 지역적 해양적 특성이 바닷물고기를 포함한 해양생물의 서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물새의 먹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물고기를 잡는 도구와 방법 그리고 어촌 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음식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밥상에도 오르는 생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흥미롭습니다. 기후 온난화와 해양쓰레기로 점점 사라져가는 일상 속 바다 생물들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고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많아지기를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에서 건져 올린 바닷물고기 이야기 '바다 인문학'을 읽고 바다 생물의 다양성과 우리에게 유용한 식품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바닷물고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함께 지켜요, 우리 바다!'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업과 월 1회 해양쓰레기 수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교류로 바다 살리기 운동을 서로 연대하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깨끗고 아름다운 바다, 바다 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름	이○경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바다 인문학		
1. 읽고 느낀 점 우리바다의 이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바다 환경을 유지하다 바다를 좋아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우리가 건강하고 즐거운 밥상을 그리고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며 식(食)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자연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바다 환경을 유지 하기란, 이해당사자가 공존하고 공생하며,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십분 이해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이해와 학습은 가능했으나,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듯하다. 수고스러울 정도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나라 어종에 대한 조사와 이야기를 수집하여 엮은 바다 인문학은 그 어느덧 바다를 좋아하는 아이보다 내가 더 많이 이해하며 바다를 좋아 하게 되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보이고 관심이 있으면 찾게 되고 더 찾다 보면 또 더 좋아 지고, 그렇게 연결고리를 통한 바다의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다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 는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은 자원들이 고갈되었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고 그치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시작이 좋은 것 같다. 우리나라 연안에 계속해서 바다 생물들이 생태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고 공 부를 한다면, 배움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름	김○동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바다 인문학		
1. 읽고 느낀 점 바다의 고마움과 바닷 물고기들의 각기 다른 맛의 선물을 푸짐하게 받은 느낌으로 완독후 보관하여 틈틈이 제각각의 맛을 음미해 보려한다			
2. 관련 정책 제안 어느 어시장이고 시장 바닥은 늘 물이 흐르고 고여서 온통 물바다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불결한 시장이 대부분이다. 작은 어시장이라도 배수로를 정비하여 늘 깨끗한 어시장이 되어야 하수로 인한 바다 오염도 줄어 들 것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어시장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름	안○연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화이트 스카이	
1. 읽고 느낀 점 이산화탄소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탄소 저감 운동을 하는데, 1% 어쩌고 하는 것을 흘려 들었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휘발유 값이 산유국독점으로 매번 휘청거릴 때마다 만만한 전기차를 사고 싶었을 뿐이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점은 솔직하게 삶에 크게 와 닿지는 않았었다. 막연히 자연 보호 차원에서 CO₂ 을 줄여야 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산화탄소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활동이 자연을 해치는 일들, 이산화탄소 증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을 알게 된 것이다. 해수면의 상승은 몰디브가 사라지고, 수온 상승은 산호초를 말라죽게 한다. 자연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시대는 종말한 것이다. 이산화탄소 증가는 인간의 문명 발달과 더불어서 증가해 왔다. 인간은 같은 종족의 편리나 안이를 위해서 지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셈이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코로나 전염병, 사람의 움직임이 멈추자 지구는 수많은 시간동안 쉬지 못했는데, 잠시 안정을 찾은 듯하다. 한국에서는 맑은 파란 하늘은 본 기억이 희미한데 요즘은 매일매일 하늘 색상에 감탄하고 있다. 이런 하늘, 언제나 옆에 있던 자연이 이산화탄소로 상해 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나, 어떤 일들을 하면 작은 나라에서라도 지구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책이었다. 산소를 마쉬고 CO₂를 내뿜는 동물, 인간이 중심에 서 있다.		
2. 관련 정책 제안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가 필요합니다. ※ 농업 활용 식물은 CO₂가 많을 수록 잘 자란다. CO₂가 많이 발생하는 도심 지역에 CO₂포집 장치를 설치한다. 기업체에 협조를 얻거나 공공투자로 포집 장치를 개발, 모아진 CO₂를 농장에 공급해 생산량을 올린다. ※방파제, 테트라포트를 만들 때, 암석과 이산화탄소 결합된 돌로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시멘트 화합물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온갖 장비와 물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름	정○남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화이트 스카이		
1. 읽고 느낀 점 (자연과의 공생) 생태계나 자연을 인간의 필요나 편의를 목적으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려 하는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어떠한 댓가나 더 큰 재앙을 불러 올수있는가를 경고하는 이야기 이다 조류번식을 막기위해 아시아 잉어를 방류했지만 지금은 잉어의 엄청난 번식으로 생태계 교란과 인간의 피해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고 다른지역으로의 이동을 막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있다 중국에서는 별미의요리로 번식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 문제가 발생하지않지만 미국에서는 식품화에 성공하지못해 늘어나는 개체에 비하여 포식자는 없어 애물단지다 관련 네이버 지식 백과를 검색하다 kbs다큐 환경스페셜 강과 호수의 침입자 동영상을 시청하게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식용으로 또는 애완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가 유기로 인한 번식으로 지금은 생태계 파괴나 교란으로 아주 골치아픈 종이 많다			
2. 관련 정책 제안 (큰입베스의 번식을 저지할수있을까) ※ 대상(토종 생물의 생태계를 지킬수 있을까)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을 제시할 수 있을만큼의 아이디어는 떠 오르지 않지만 외래 생물 종의 침입으로 토종 생물의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있고 멸종의 위협을 받고있다 결국 모든 원인은 사람으로 부터 왔다 베스 낙시 동호회 등에서 우리의 강이나 호수에 베스를 몰래 방류하여 낙시를 즐길 개체를 늘리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외래 생물종이 국내 생태계에서 어떤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계도로 전국민이 우리 생태계의 감시자 또는 지키미가 되는 그날까지 교육하고 알려야 하지 않을까 나 또한 이 프로그램을 접하므로 해서 토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듯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빠른 홍보를 위해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또한 성인들을 위해서는 전국의 넘쳐나는 축제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등 일부 환경단체만의 활동이 아닌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일인듯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국에서는 아시아 잉어를 포집하여 비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생태 위해종들을 포획하여 수매하여 비료를 만드는등 적극적인 제거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해본다			

이 름	조○욱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O) 2021년(O)
도 서 명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		
1. 읽고 느낀 점 환경도시 창원에 산다는 건?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 라는 책은 한마디로 내게 창원에 산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할 것이다. 넓게 보면 나라가 지방정부가 좁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정책을 실행했을 때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생각할 것이다. 부탄에 살고 있고 한때 살았던 세 여성이 각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부탄을 이 책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부탄이란 나라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는지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말해주는 것 같다. 결국 어떤 것이든 내가 느끼는 행복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부탄, 은둔의 나라, 신비의 나라 그리고 행복의 나라! 그 속에서 느꼈던 일상의 삶이 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되게 느껴졌고 다른 나라지만 같은 정서를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부탄을 한 번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관련 정책 제안 창원시 정책 실천 공모전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매년 창원시는 정책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 1. 대상: 창원시민 2. 시기: 3월 ~ 11월 3. 세부내용: 1) 창원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3월~4월) 2) 창원시 정책 아이디어 공유(5월) 2) 창원시 정책 실천 공모전 개최(11월)			

이 름	최○림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1. 읽고 느낀 점 가까운 곳에서 내 마음을 치유하자. 겨울이 다가오면 운문산에서 동백꽃을 보러가고, 봄이 오면 섬진강으로 벚꽃여행을 떠난다. 단풍을 그리기 위해 내장산으로 출발하고, 시원한 여름을 느끼기 위해 지리산 계곡을 찾듯이 나는 계절의 변화를 보려고 혹은 휴식을 위하여 먼 길을 이동한다.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기후로 서식하는 생물도 다르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넘친다. 하지만 먼 길을 이동하기 위해 나서는 수고가 만만치 않아 요즘은 망설여지기도 한다. 휴식을 취하고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면 많은 것들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을 내 놓아야 하고, 나의 금전을 내놓아야 하며, 무엇보다 기후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탄소를 내놓는다. 이처럼 휴가를 보내던 내 행동이 어찌면 내 몸이 더 피곤해진 행동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동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바꾸기 위해 먼저 이 책에서 묘사하는 경치와 각종 식물, 동물을 상상하며 내가 사는 곳 주위에 있는지 검색해보기도 했다. 생각보다 많았으며, 멀리가지 않아도 내 주위에 많은 생물들이 서식함을 알게 되었다. 애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운문산을 가지 않아도 되며, 벚꽃을 보기 위해 섬진강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멸종위기종을 관찰하는 것보다 내 발밑에 있는 민들레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도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름	주○옥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1. 읽고 느낀 점 자연을 배경으로 쓴 김영희 선생님의 에세이 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건 념 많은걸 주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시골에서 태어났기에 선생님의 글이 나를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들과 산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풀과 나무 곤충 이지요. 저 또한 어릴적 소 먹이러 다니고 농사짓는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면서 자라왔기에 선생님의 글에 공감이 많이 되고 나의 어릴적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행복했던 어린시절 이였습니다. 기억에 남는건 심봤다! 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구 제가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귀한 걸 선물 받은 느낌 이였습니다. 사람도 꽃으로 필 거야 제목처럼 역시 사람이든 자연이든 모든 것이 꽃으로 피어날 때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식물관찰자가 들려주는 가슴 뭉클한 자연 이야기 읽는 내내 나에게 행복함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기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글을 쓰려고 하니 잘 쓰여 지질 않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일회용품 쓰지 않기 1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념 많이 쓰고 있는 일회용품! 볼 때 마다 제 눈살이 찌푸러 집니다. 자기 컵(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육 고기 적게 먹기 요즘 념 많은 것이 넘쳐나는 것 같아 마음이 심히 힘듭니다. 조금만 아껴 쓰고 절약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의 친구들에게 좋은 자연을 물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름	황○나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1. 읽고 느낀 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꽃과 꽃에 담긴 역사 봄 데이지-겸손하고, 온화하고, 서민적인 이미지, 수선화-낮선 곳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행동하면서 적응을 잘하는 이민자, 백합 - 성모마리아와 관련, 카네이션-혁명의 영원한 상징 여름 장미-왕실과 국가를 상징하는 꽃, 연꽃-인도의 국화이자 종교, 문화적으로 가장 오래된 상징 목화-목화 재배에 노예를 부림, 해바라기-방사능 물질 처리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처리함. 가을 사프란-약, 염색재료, 메리골드-죽은 자를 위한 꽃 양귀비-살아남으려는 끈질긴 의지로 전쟁 후의 삶을 나타내는 강렬한 상징 겨울 제비꽃-죽음과 부활 혹은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으로의 변신을 의미 제라늄-빅토리아 시대 이상적인 집으로 생각된 실골 오두막의 상징 스노드롭-눈처럼 하얀 꽃, 빛을 향해 힘차게 밀어 올린다는 의미 아몬드-인간이 먹을 수 있는 단일 음식 중 영양학적으로 최고 꽃이 이처럼 많은 상징과 쓰임새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해바라기 심기 & 해바라기 축제 ※ 대상 : 일반시민(환경 정화 및 축제 참여) ※ 추진 방법 : 해바라기가 환경정화에 쓰임을 이용하여 공원에 해바라기를 심고, 축제를 열어서 해바라기 관련 상품도 제작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바라기 축제가 타지역에도 있지만 창원에도 축제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라든지, 청소년, 노인 모두 참여하는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름	박○영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읽고 느낀 점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를 읽고 신비의 나라를 책을 통해 알 수 있어 행복하다 그곳에선 어떤 일과 일상을 볼 수 있을까? 이곳에 소수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니 신기하다 삶에는 특별한 경험 또는 그들에겐 현실적인 경험이 평범한 일상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사회 경제 어느 것 하나 대중이라곤 찾기 힘든 원칙이 그들을 유지하게 하는 원천이며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생필품과 공산품을 수입품에 의존해야 하지만 다양한 인식 캠페인을 도모하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와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름	김○경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읽고 느낀 점 과잉관광과 여행을 생각해 보며 누구나 한번쯤 꼭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나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될 이야기. 과잉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여행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적절하게 시사하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다 비행기의 탄소와 동물 보호 그리고 환경의 보존과 보호 그것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인 것을 나는 너무도 무례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본다 뜻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니 다음번 여행은 배나 자전거 가까운거리의 자연과의 만남을 가지고 싶고 최소한의 에너지 배출과 크지 않더라도 환경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보며 이렇게 소중한 책과 시간을 주신 창원시에 감사를 전합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창원시 여행의 시작은 자전거로 저어라 두다리 창원시에는 누비자라는 아주 훌륭한 여행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저로서는 창원시 여행 관광에 자전거 투어를 활성화 해보고자 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많이 되어있고 스템프 투어에 활용해도 좋고 sns를 이용하여 먼저 자전거 여행단을 만투어 들고 활동 함으로써 주말에 지친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운동고가 탄소 줄이기 운동이 될거라 믿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방향을 정하여 창원 곳곳의 여행지를 개척해보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이 름	홍○애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기후위기와 비즈니스의 미래		
1. 읽고 느낀 점 우리의 미래는 오래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는 꾸준히 있었다. 다만 머나먼 이야기라 생각을 하고 나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업들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눈감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누구하나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당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영향은 계속 있어왔으나 다들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그 영향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기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 못하는 사람도 많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열대지방에만 살던 박쥐들이 비열대지방까지도 거주를 많이 옮겼고 거주를 옮긴 박쥐들을 조사해보니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미래, 아니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라도 지구 살리기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2. 관련 정책 제안 탄소포인트제도활용 기후위기, 지구환경 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초등학생 이상은 되어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있는 탄소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탄소 저금제도 같이..			

이 름	김○옥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1. 읽고 느낀 점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도서를 신청을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소제목인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해서는 안 된다’ 라는 문구를 보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성장을 하면 안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관심이 많았고 최대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후감 제목을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이라고 지어보았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품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배출 등을 실천하고 있는중으로, 앞으로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고, 출퇴근 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일주일에 2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길어져서 일찍 나서야하고 늦게 퇴근하겠지만 지구의 수명을 조금이나마 늦출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책의 마지막에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저는 이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며, 저와 같이 개개인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하는 것이 총합이 되어 지구를 살리는 큰 전체가 될 것입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및 실천 아파트 선정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통한 실천 아파트를 선정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쓰레기 봉투나 창원사랑상품권 등 상품을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준과 선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서 함께 실천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합니다.			

이 름	오○현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나의문화유산 답사기 제주		
1. 읽고 느낀 점 처음 책에서 느낀점은 사진이 너무 선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보통의 답사기의 책보다 사진이 어둡고 선명하지 않아서 글과 매칭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제주의 여행지나 올레길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알고있었지만 제주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궁금증이 많이 해소 되었다 관덕정이라는 제주의 심장 세종30년에 세워지고 보수까지 이어져온 곳을 난 왜 알지 못했을까 훌륭한 덕을 보기 위함 의 이름을 따라 예의와 범절의 깊은 의미까지 이책에서 제일 도움이 된 구절이기도 하다 여행관련의 책이기도 하지만 역사와의 연결성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2. 관련 정책 제안 도서관 관련 청소년 층에서 베스트 셀레가 아니어도 꼭 읽어야하는 부분의 책 선정 세대가 나누어져있지 않는 책 선정보다 분야별 나이별 대상별 나누어져서 조금 더 다양한 도서 선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작 우수선정은 작은 칼럼이나 책으로 만들어서 한번씩 발간하는것도 추천 책을 읽고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먼저 모여서 책을 읽고 공감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먼저 되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 연계적으로 시행			

이 름	조○영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1. 읽고 느낀 점 내가 제주를 좋아하는 이유 제주, 그곳은 나에게 따뜻함, 위로, 치유 이런 단어들로 대체되는 곳이다. 그래서 짧게라도 시간이 생기면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제주에 한 번 씩 가는 편이다. 그런 내가 이 책을 읽게 되어 참 감사했다. 처음 제주에 갔을 때 나는 올레길을 걸었다. 그 매력에 빠져 종종 걸으러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제주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상처가 많은 곳이기도 하였다. 올레길에 있던 곳들도 책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제주 4.3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또 동백이 참 예뻐던 위미리의 동백나무 울타리도 그저 그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 할머니가 어렵게 생활하시며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을 만들고 정성으로 일군 것이라니. 나는 이 책을 읽고 그동안 그저 제주가 좋아서 여행했던 나의 모습이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하였다. 다음번 제주 여행에는 이 책을 꼭 챙겨서 어떤 곳에 가게 되면, 또 그 지역을 지날 일이 생긴다면 이 책을 펼쳐 좀 더 곱씹으며 다시 읽어보고 여행을 하고싶다. 요즈음 점점 관광지로 변해가는 제주의 모습에 씁쓸해지기도 하는데 제주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단순히 여행 책이 아닌 이 책도 손에 들려지기를 소망해본다. 2. 관련 정책 제안 창원의 공원 리스트 작성 차를 타고 창원을 둘러보면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다. 주말마다 이 공원에 오자 이야기하는 곳도 많다. 그런 곳을 어떤 지도나 리스트로 작성이 되어서 리플렛으로 만들어 두면 창원에 사는 이들도, 또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 *워크온 통한 걷기 인증 작은 단체들에서 걷기 인증을 몇 번 해보았는데 좋았다. 시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걷기 인증, 혹은 플로깅 등을 인증하고 창원상품권으로 선물을 준다면 하는 보상을 하면 어떨까 싶다.			

이 름	송○혜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읽고 느낀 점			
'제주 허씨'를 위한 '제주학' 안내서			
이 책은 1990년대 전국 답사 신드롬을 일으킨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이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렌터카 자동차번호 '허'에서 따와 '제주 허씨'를 위한 '제주학' 안내서라고 소개한다. 이 책은 제주의 동서남북을 15편으로 구성하여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식물, 지질, 역사, 마을과 도로 등 숨겨진 제주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저자는 제주는 자연이 내린 축복이라 한다. 육지인에게 제주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제주인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자연적으로는 난대성 식물과 화산지형 같은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에는 한라산 뿐만 아니라 400여개의 작은 오름들, 160여 개의 용암동굴, 해녀, 제주마(馬), 돌하르방, 선사시대 유적지 등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한다. 저자는 제주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자연환경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주를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과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제주의 역사를 말해주는 탐라국의 삼성혈, 제주 4.3사건, 제주해녀항일기념탑, 한라산의 높이를 처음 측량한 독일인 지그프리트 겐테,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 삼별초 항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제주 역사 종합 설명서이기도 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저자의 말처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아도 서로가 느끼는 감동이 같을 수 없다. 제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그림 한 점이 담고 있는 구구절절한 사연 등, 그 속 이야기를 알고 나니 제주가 새롭게 다가온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 있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다.			
2. 관련 정책 제안			
창원을 친환경 생태 및 관광 및 문화도시로			
1. 창원의 공공기관의 옥상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전기 조달 2. 도로 방음벽마다 태양광 패널 설치 3. 나폴리나 산토리니처럼 진해와 마산 바닷가 쪽 건물들의 색깔을 통일 시켜 보는 것 4. 마을 공동체 형성-마을 공동 텃밭 만들기, 마을 단위 축제 활성화 5.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 유적지와 관련한 현대사 관광상품 개발 6. 일제강점기 마산, 진해 근대 문화 유산을 이용한 투어 7. 진해 벚꽃 축제와 천주산 진달래 축제 활성화-다른 관광명소와 결합하여 당일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며칠간 머물러 갈 수 있게 유도 8. 동읍 주남저수지, 용추 계곡, 달천계곡, 진해 생태공원 생태 관광 활성화 9. 창원 바다 둘레길 정비 및 홍보 활성화 10. 현대미술관 창원 유치 11. 창원에 전해오는 전설을 이용한 이미지 텔링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12. 창원의 미술가, 음악가, 문인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13. 시민을 위한 무료 인문학 강좌를 자주 실시			

이 름	곽○미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주편		
1. 읽고 느낀 점 자연, 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탐방한 제주도 유홍준 교수는 자연, 문화, 역사의 관점에서 제주도를 설명해준다. 제주도 여행을 가서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쳤던 자연 풍경들을 설명을 듣고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서, 다시 제주여행을 가보고 싶고, 새롭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빼어나고 독특한 자연 경관과 자생 식물들을 가지고 있다. 성산일출봉, 용암동굴, 오름, 한라산 우리가 제주도 하면 떠올리는 자연 경관들이다. 또한 4.3 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이 때문에 외지인에 대한 배척이 생기기도 했다. 4.3사건 위령탑과 기념관에는 문제가 많다. 아픔의 유적지 다워야 하는데, 뿔대를 세워놓아서 충혼탑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갔다. 위로하고 추모하는 형태의 진심어린 마음이 담긴 추모공원이나 기념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복을 따서 나라에 공물로 바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는 슬픈 제주해녀의 역사도 있다. 돌하르방은 원래 읍성의 대문 앞에 세워진 지킴이였다. 특히 관덕정과 삼성혈 앞 돌하르방은 조각 자체가 가장 멋있으면서, 연대가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제주도는 추사 김정희가 9년간 유배 살던 곳으로 세한도가 그려졌고, 추사체가 완성된 곳이다. 추사는 제주에서 가시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가졌는지도 모른다. 남에게 구속받고 본뜨는 경향이 없게 되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게 된다. 2. 관련 정책 제안 창원의 관광 정책 제안 창원에도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처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관광지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창원의 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창원을 조망한 책은 김대홍의 '마산, 진해, 창원'이 유일하다. 관광지로 거듭나려면 그 지역만의 특색이 떠올라야 하는데, 창원을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단감, 3.15 의거, 부마항쟁, 진해군항제, 소사마을, 주남저수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국화축제, 로봇랜드 등등 창원에도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과 창원만의 역사가 있다. 창원 또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처럼 창원의 문화, 역사, 자연적 관점에서 하나의 스토리로 창원을 조망한 책이 창원시 차원에서 발간되었으면 한다. 창원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일반 대중의 편견을 해소하고, 창원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게 해서 창원을 관광도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또한 이 책에서 4.3 사건 위령탑을 지적한 것처럼 마산의 3.15 의거탑도 뿔대 형식으로 지어져서 충혼탑과 잘 분간이 가지 않는다. 전형적인 뿔대 형식을 벗어나서,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모뉴먼트나 워싱턴의 베트남전쟁 기념 모뉴먼트처럼 건축적 사고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추모 건축물로 대체되기를 소망한다.			

이 름	안○석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언노운		
1. 읽고 느낀 점 우리 첫째 아이는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마음이 약한 사춘기 아들이다. 그런 아이에게 권해주고 싶어 네이버에 찾아 보다 정한 '언노운' 책을 권하기 전에 항상 내가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아이가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책은 아직 첫째가 읽어보질 못했다. 학원숙제가 많다는 핑계, 글이 작고 많다고 천천히 본다고 한다. 나는 우현이라는 아이를 책속으로는 이해해 보려 애쓰지만, 내 아이라면 과연 나는 영주처럼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육박을 지르고 말도 안된다고 난리를 칠게 분명하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이라 못박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듯 했다.			
2. 관련 정책 제안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우리는 여전히 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려워 하고 부끄러워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자니까 남자니까의 역할 성교육이 아닌 요즘 말로 젠더 교육? 하나의 인격체로서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름	이○훈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1. 읽고 느낀 점 인간이 만든 것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니 이 안에 있는 정보 중 가지각색의 동물들의 수와 특징을 알아서 재미있고 좋았고 지구에 살았던 사람은 총 990억 명이라는 것이 놀라웠고 우리 인간이 버린 쓰레기는 거의 100배가 넘는 것을 알고 저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가 저 큰 쓰레기 중 일부분이라는 것이 죄책감 들고 다음부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 되는 것은 각각 버리지 않고 이제부터 환경을 가족처럼 대하고 싶고 꼭 자연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좋은 사람처럼 환경에 대해 이해하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고 알아보고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조금만 바꾸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 실천을 하게 해주고 쓰레기 줍기 챌린지, 하루 5000보 걷기 등등 학생들이 자연을 사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홍보를 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는데, 시에서 홍보를 할 때에는 홍보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시청 홈페이지 홍보 및 시민들에게 시 관련 소식을 문자로 받는 사전 신청을 받아, 현수막 뿐 아니라, 홍보지 제작 횟수를 줄이면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름	조○수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롭 시어스-		
1. 읽고 느낀 점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지?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이라니. 누구의 발자국이길래 그것도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일까?라는 호기심으로 고른 책입니다. 발상이 놀라워요. 전세계 80억 인구를 뭉쳐서 대왕인간을 만들다니. 놀랍지않나요? 평소 인구수가 어떤지 동물들의 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 들고 있는지 크게 관심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버려지는 쓰레기는 얼마만큼 많은지 대충 많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지구 상에 있는 인간을 뭉쳐 한 명의 거인으로 만들고 실험을 진행해요. 대왕인간이 먹고, 입고, 싸고, 파고, 버리고 하는 것 들을 우리가 한번에 이해하기 쉽게 수치화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눈에 속속 들어오게 적어둔 책이어서 막연한 글로 표현한 책들보다 머릿속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대왕인간이 키가 3km, 몸무게는 3억 9천만톤이라니. 어마어마하게 큰 만큼 먹는양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몇 번입고 버려지는 옷들도 연료를 태우고 자원을 캐고 모든행동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버리네요. 책을 보고나니 갑자기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전세계 80억인구가 다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실천해 나갈수 있는것 들을 배워나가고 실천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비록 80억 인구중에 한명일 지라도 나부터 시작하면 언젠가는 가족. 친구. 동네주민 점점 늘어나겠죠? 작아 보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씩 하는 환경지킴이가 되겠습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나의 작은 실천(지구특공대)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면 바뀌지 않는다 나라도 시작해야 또 누군가는 나를 따라 같이 행동하지 않을까요? 생활 속 작은 환경실천 행동을 사진찍어올려요. 환경을 지키는 행동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을텐데 막상 물어보면 별로 생각이 나지 않거나 뭔가 큰 행동만이 환경을 지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실천 방법들을 서로 서로 알려주고 공유하는 방법이 있지않을까요? (ex. 학생-학교갈 때 생수병 대신 텀블러사용. 성인-일회용컵 대신 텀블러사용 비닐대신 장바구니, 물티슈대신 걸레사용, 분리수거 방법.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하기 실내적정온도지키기)			

이 름	박○를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물은 정말 힘이 세	
1. 읽고 느낀 점 우리가 사는 창원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을 많이 아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양치컵을 사용해보니 물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양치컵 사용 홍보나 이벤트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i>나날이 발전하는 창원</i> 저는 각 가정에 미니수도정화시설(가정용 정화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 씻을 때 쓴 비눗물이나 엄마가 설거지할 때 쓴 물을 직접 집에서 정화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세제를 아껴써서 물이 덜 오염되게 하고 사용하는 물의 양도 줄어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절약한 만큼 시민들에게 선물을 줘서 모두가 행복한 창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름	임○연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또리네 집	
1. 읽고 느낀 점 또리야 안녕! 얼마 전 모 드라마에서 정은혜라는 발달장애인 배우를 본 적이 있었다. 그림을 잘 그리고 귀여운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또리네집'의 주인공이 정은혜 작가라는 것을 알고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다. 또리네집은 발달장애인 딸과 엄마, 아빠, 남동생을 구성원으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평범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꼭 발달장애인 가족이 아니어도 엄마가 가장이고 아빠는 육아와 살림을 맡은 가족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있기에 일반적인 가정과 다를 것이라는 편견, 또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장애인 가족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리네 집은 별나 보이지만 결코 별나지 않은, 어느 집이나 그렇듯 울고 웃으며 사랑하는 우리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이 름	진○주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또리네 집		
1. 읽고 느낀 점 비장애인과 장애인 우려한 기회에 간단한 감상문 제출만 하면 도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만화책이라 고른 또리네집~ 만화책이라 쉽고 간단하게 재미있게 술술 읽을 줄 알았지만, 내용은 마냥 재미있게 읽을 내용은 아니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은혜집 이야기 얼마전에도 드라마에서 우영우라는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우영우를 차별하는? 권모술수(나쁜역 별명)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저런 사람이 어디있냐고 하지만, 현실속에선 그 나쁜 사람이 나왔다. 드라마나 책속에 나오는 장애인에겐 한없이 너그럽지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장애인 문제는 아주 차갑게 모질게 대하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느끼면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관련 정책 제안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우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장애인 아이들은 다른 반에서 생활하게 된다. 명칭은 사랑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도움반 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라는 생각부터 바뀌었으면 한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칭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름	최○호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o)
도 서 명	이제 전쟁 난민보다 환경 난민이 많대요		
1. 읽고 느낀 점 알고는 있지만 ... 이 책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라면 다들 아는 이야긴데, 어린이들이 알 기 쉽게 풀어 둔 책입니다. 전기 아껴쓰기에서는 에너지 절전과 특히 친환경으로 오해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관리할 수 없고 몇백년을 폭발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안고 산다는 것이 말이되는지... 인간의 욕심과 자만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같아 걱정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핸드폰 오래 쓰기, 물건 덜 사기 나누어 쓰기 바꿔쓰기 착한 여행 떠나기는 저에게 더 많은 실천을 요구 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지원 시기가 오면 으레 신규 폰으로 바꾸거나 조금만 성능이 떨어져도 바꾸곤 했는데 서비스센터에 가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하니 다음엔 꼭 그렇게 실천토록하겠습니다. 물건 덜 사기도 꼭 필요 한 것 같아 사더라도 한번 쓰고 안쓰게 되었는데 지금도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사지만 열 번 이상 사용하지 않을 물건은 꼭 다시 생각하고 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착한 여행 또한. 일년의 한번이라 풀빌라 수영등을 생각하며 사용하곤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겐 식수 라는 것을 꼭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학교 태양광 활성화 정책 창원의 탄소중립 방안이 여러모로 모색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소형 원자로를 이야기 하는데, 이 원자로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험하고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를 후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살자고(그것도 위험하게) 후세대에게 쓰레기를 준다? 후손들은 우리를 원망하고 또 원망할 것이다. 그렇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학교마다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억측과 오해들이 많아 학교현장에 설치하고 싶어도 학교 구성원중 학부모회에서 반대, 교장의 반대 등이 있어 설치가 어려운데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각 학교마다, 동마다 또는 언론을 통해 제대로 전달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 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대해 꼭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인식 증진해야 할 것이다. 2030년까지 , 2050 까지 탄소중립은 꼭 실현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선언을 한 바 있다. 창원도 우리 시민이 살기 위해 이 제안을 꼭 들어주길 바란다.			

이 름	이○혜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플라스틱이 온다	

1. 읽고 느낀 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올해 해운대에서 하는 작은 행사에 다녀 온 기억이 난다.
 아이 손을 잡고 다녀온 해변에서는 바다생물이 처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 조형물 등을 볼 수 있었다.
 플라스틱, 유리병, 생활 쓰레기 등을 먹이로 오인하고 삼켜버린 안타까운 동물들과,
 끊임없이 버려지는 오염물로 지독하리만큼 나빠져버린 바다 생태계...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할지 너무나 미안하고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번, 도서 역시도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느끼는 점이 참 많았다.
 생활 쓰레기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해오는 그 끔찍함! 바다 생물들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 아닐까..

2. 관련 정책 제안

1. 생활 쓰레기 감소, 재활용 분리수거 및 배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캠페인
2. 각종 생활 박람회 (쓰레기와 관련된 정책, 포럼 등)
3. 시민 교육 활성화
4. 쓰레기 감축과 관련된 입법을 통하여 경각심 제고

이 름	최○수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o)
도 서 명	뭐야 지구가 떠났다고?		
1. 읽고 느낀 점 지구야 우리를 떠나지마~~~~~ 지구가 사라졌다 식물 동물 바다 육지도 사라졌다 빨리 모여라 정치인들이 한곳에 모였다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군대를 먼저 부르라고 하였다 군인들은 지구를 수색할 방법과 작전을 세웠다 그 다음으로 과학자와 비행조종수가 모였다. 비행사들의 작전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수색하는 것이었다 다음엔 철학자들이 토론하고 그 다음엔 환경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 요리사들이 ,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였다. 시민들은 “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 시위하였다. 그 중 한 시민이 쓰레기부터 줍자고 했다. 사람들은 협동의 마음으로 그 많고 많던 쓰레기를 주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난다. 지구가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이야기 했을까? 쓰레기를 다주었을 때 과연 지구가 돌아왔을까? 한 시민의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지구가 정말로 떠나지 않게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일회용품을 적게쓰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반 친구들과 책 내용을 알려주고 이야기 해보아야 겠다.			
2. 관련 정책 제안 지구살림, 나 살림 모두 살림 지구가 정말 우리를 떠나기전에 지구를 붙잡아야 합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학교에서 자원순환교육과 에너지 절약교육,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환경교육을 8시간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서 엄마 아빠의 싸인을 받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환경 박사가 되어 서로를 살리는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떠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은 “ 지구는 안떠나 인간이 떠나게 될 거야 ”			

이 름	김○환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돌아와 귀신고래야!	
1. 읽고 느낀 점		
이상한변호사우영우를 보면서 고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이도 나도. 그래서 고래와 관련된 책, 지역축제, 행사 등을 다녀왔는데 무분별한 고래사냥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래뿐만 아니라 바다생물의 생명의 위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너무 흔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못했던 플라스틱 사용과 나 하나 짬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시간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아닐까 싶다.		
2. 관련 정책 제안		
제대로 된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페트병 모으는 페트론 곳곳에 설치!! 시민 교육 활성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광고		

이 름	김○산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양심을 팔아요		
1. 읽고 느낀 점			
양심을 팔아요			
현대사회에서 모두 함께 생각해 본 문제를 동화로 풀어내는 동화책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인식 시킬 수 있고, 내면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 동화책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 읽어야하는 책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가장 기본을 가르쳐주며 내면의 양심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필독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가칭(창원시 지속 발전 협의회)			
● 동별 협의회 설치(주말 이용 쓰레기 줍기 행사 및 마을 지킴이 활동) ● 기업체 봉사단과 협약하여 환경 정화활동 실시(주말 활용) ● 매주 주말 활용하여 행사 실시(동별) ● 한달에 한번 정도 기업체 봉사단과 환경 정화활동 실시(예:봉암 갯벌 정화활동) ● 환경미화원 휴식 제공(주 5일 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 시 활동 실시)			

이 름	김○지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내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1. 읽고 느낀 점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시장갈 때 장바구니를 챙기고 이를 닦을 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아껴쓰기 가까운곳을 걷거나 자전거이용 먹을만큼만 음식을 뜨고 남기지 않기 안쓰는 전기불은 끄기 냉장고문은 자주열지 않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분리수거 잘 하기			
2. 관련 정책 제안 (※선택사항, 제안 시 우수작 심사 혜택有) 1. 빨래감은 한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2. 새옷에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다고 합니다 3. 꼭필요한 옷만 사기			

이 름	정○임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꿀벌의 노래		
1. 읽고 느낀 점 꿀벌 요즘 벌 보기가 힘들고, 실제로 양봉하는 곳에서도 벌들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봉하는 곳에서는 꿀을 찾아 갔던 벌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농약을 뿌리는 곳을 지나가다 기억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식물들을 위해 벌이 필요하고, 인간과 동물을 위해 또 식물들이 필요하고, 자연에는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는데.. 미래의 아이들의 위해 자연을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다.			
2. 관련 정책 제안 꽃화분 가꾸기 꿀벌을 위해서 꽃 화분 가꾸기 행사 개최하기			

이 름	김○기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나무가 자라는 빌딩		
1. 읽고 느낀 점 녹색도시를 위해서. 자연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학교에 지친 사람들은 주말이면 자연을 찾아갑니다. 캠핑을 하고 산에 오르며 또 한주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언제나 자연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책 속의 아이는 미세먼지로 뿌연 집밖 세상을 뒤로 하고 자연과 이웃과 함께 하는 집을 그립니다. 아이의 상상속 빌딩에는 수영장도 있고 꽃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사중인 회색빛 건물만 보일 뿐입니다. 정녕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몇해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친환경 녹색 도시답게 나무와 숲이 건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수로와 트램이 중심가를 오가고, 시민들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환경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었고 우리도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대에는 어려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좋은 유산을 꼭 남겨주었으면 합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식물이 자라는 건물 ※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수혜자 : 시민 수혜내용 : 시가지에서 시민이 느끼는 녹음에 대한 만족도 향상. 심리, 정서적 안정감.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 ※ 추진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 내용: 도시의 실내외 벽면 녹화(수직정원, 식물벽), 담벼락 녹화, 옥상 녹화 사업 사업실천 방법: 녹화사업을 진행한 건물주 또는 시민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 시공비용 등을 지원. 시청 또는 관공소 중심으로 시범 사업 진행.			

이 름	정○영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할머니의 용궁 여행		
1. 읽고 느낀 점 무조건 지구부터 살린다 우연한 기회로 [책 읽고 제안하기] 덕분에 책을 읽게 되었다. 주제는 환경 지키기! 우리 집은 돈을 좋아한다. 물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가스를 아낀다. 지구를 살리고 내 가정 경제도 살린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 건 절약 때문 이었다. 하지만 아낄수록, 내 딸 아이가 커갈수록 더 절실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쉽게 만들고, 쉽게 버려진다. 우리 부모 세대는 아나바다를 실천하며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 할머니 용궁에서 바다 동물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지켜줘야 할 텐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다. 이 책을 신청하고 아이에게 말해줬더니 이미 유치원에서 읽어 본 책이라고 했다. 드디어 책이 도착하고 잠자리 독서시간에 읽어줬다. 해녀 할머니가 사투리로 말씀하시는데 아이가 재미있어서 큰 소리로 웃었다. 어른의 마음처럼 걱정보다는 재미있는 책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절약을 위해서도 지구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써야겠다. 바다야~ 하늘아~ 땅아~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할게 건 강하게 함께하자. 고마워 2. 관련 정책 제안 공익광고-우리의 노력으로 지구가 행복해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 또한 다양하다.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3. 탄소포인트제 등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보상받는 정책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분리수거를 할 때 많은 의문이 생긴다. 이게 페트병인가? 이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할까? 등 초등학교 때 분리수거에 대해 배웠던 걸로 기억한다. 초등학생이 분리수거를 주도하기보다는 부모님을 돕는 정도 일 텐데. 실제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건 살림을 사는 성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내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환경에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분리수거장에서 어떻게 재활용으로 이어지는지 또한 궁금하다. 개인이 실행한 작은 노력이 지구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알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 티브이 광고에서 환경오염 때문에 동물들이 아파하는 모습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공익광고로 분리수거하는 방법,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모습, 우리의 노력으로 지구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 주변을 봐도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모두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처럼 공익광고가 나오면 좋겠다.			

이 름	김○영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할머니의 용궁여행	

1. 읽고 느낀 점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것들

할머니 해녀가 용궁에 가서 빨대가 코에 박혀있는 자라의 빨대를 빼주고
 그런뒤 여기저기서 서로 도와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 더미를 물 속 사는 물고기들이 먹이로 알고 먹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쓰레기 섬이 있을 정도로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동물과 물고기들
 우리가 편하게 쓰는 것들이지만 그 뒤엔 아주 고통 받는이들이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내편의 보단 환경을 위해
 안쓰도록해야 겠습니다.

2. 관련 정책 제안

포장 박스해보면 불필요한 포장이 너무 많습니다. 지탱하는 박스나 지탱하는 스티로폼등..
 이런것들이 없어도 아니면 줄여도 될텐데 더커보이고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 인데 이런
 것들 대대적인 검사가 필요할듯합니다.

의약품들 다쓰고나면 일반쓰레기로 안버리고 약국에서 모으는 걸로아는데 모르는사람도 많
 고 약국도 잘안받아주려고 하죠.땅속으로 가면 오염됩니다.

아이스박스수거함 아파트마다 설치되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얼마전 동사무소에서 건전지40개 모으면 2알 주는거 행사 좋았습니다.

장난감은행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장난감 안사고 빌려쓰고 좋았어요

이 름	홍○민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할머니의 용궁여행		
1. 읽고 느낀 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바다를 가면 겉으로는 물이 맑아 깨끗해 보이더라도 바다 속을 보면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하다. 특히나 어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다고 한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생명체에 영향으로 주고 또 돌고 돌아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는 악의 순환이다. 할머니의 용궁여행은 아이들이 상상하는 바다 속의 세상에서 있을 법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 어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시켜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다.			
2. 관련 정책 제안 (※선택사항, 제안 시 우수작 심사 혜택有) 바다와 함께 살기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 바다 체험 프로그램 행사 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주워 모아오면 기념선물 증정 플라스틱을 재사용하여 만든 물품 같은 선물을 증정하고 그 장소에 쓰레기를 모은 만큼 살릴 수 있는 바다생명체의 생명수를 볼 수 있게 시각적인 장치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음.			

이 름	박○연	전년도 참여 여부 체크	
		2020년()	2021년()
도 서 명	할머니의 용궁여행		
1. 읽고 느낀 점 바다친구들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 인간들의 쓰레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표현하여 즐겁게 읽을 수 있었음. 다만 아이들에게 충분히 재미있고 좋은 내용이나 사투리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음.			
2. 관련 정책 제안 바다 살리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육하기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를 어린아이들부터 놀이처럼 접할 수 있도록 쓰레기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그림과, 쓰레기를 줄임으로 써 살릴 수 있는 동물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볼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모아 동물사랑 마일리지처럼 적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습관화 할 수 있는 방법			

2022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읽고 제안하기’

PART 4

우수 제안 선정 회의



4

우수 제안 선정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1. 7(월) ~ 14(월)
- 진 행 : 서면으로 진행(회의자료 송부 후 서면의견서 취합)

심사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직위
1	박 경 숙	K-ECO연구소	연구원
2	박 정 문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사무차장
3	안 명 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4	유 현 석	창원YMCA	사무총장
5	이 명 숙	(사)경남여성교육연구원	사무국장
6	이 찬 원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7	최 성 희	의창평생학습센터	센터장

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독후감상문		도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표현력, 창의력, 맞춤법 등	60
정책제안	실행가능성 (타당성)	구체적인 실행가능성, 사업규모, 지속가능성 등 (추상적인 제안x)	20
	독창성	타 시도와의 차별성 및 창원시에 맞는 독창성	10
	공익성	시민 수혜, 편의증진, 시민 참여	10
합			100

2022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읽고 제안하기’

PART 5

도서 선정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22. 09. 20.(화) 17:00 ~ 18:00
- 장 소 : 다솜 소회의실

참석자 명단

- 참 석 : 총 5명 참석
- 사무국 : 김연옥 사무국장, 윤재영 간사

연번	성 명	소 속	직위
1	박 경 숙	K-ECO연구소	연구원
2	유 현 석	창원YMCA	사무총장
3	이 명 숙	(사)경남여성교육연구원	사무국장
4	이 찬 원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5	이 종 훈	창원시	(前)기후환경정책관

회의결과 정리

- 연령별(성인, 청소년, 초등 고, 초등 저, 유아) SDGs이해 도서 선정
- 정책 제안서 형태에서 독서 감상문 위주로 시민 편의를 위한 양식 변화
- 이전의 읽고 제안하기 참여경험 및 시민 독서 모임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 사항 추가
- 우수 제안 선정 심사 기준은 작년과 동일, 독서감상문 양식 추가에 따른 심사기준 세분화 필요
- 기존의 온라인 시스템 사용 시 겪었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구글폼 활용)
- 3개년도의 우수 제안을 엮어 자료화하는 등 사업 결과물 도출

2022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읽고 제안하기’

PART 6

읽고 제안하기 전체 참여자 명단



연번	성함(가나다순)	도서명
1	강 ○ 선	뛰는 사람
2	곽 ○ 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주편 돌하르방어디감수광
3	구 ○ 승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주편 돌하르방어디감수광
4	권 ○ 옥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5	권 ○ 정	희망정거장에 온 아이들
6	김 ○ 룰	두번째지구
7	김 ○ 동	바다인문학
8	김 ○ 경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9	김 ○ 원	할머니의 용궁 여행
10	김 ○ 자	화이트 스카이
11	김 ○ 규	탄소로운 식탁
12	김 ○ 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13	김 ○ 현	오늘의 에코 라이프
14	김 ○ 기	나무가 자라는 빌딩
15	김 ○ 진	사회적 농부
16	김 ○ 옥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17	김 ○ 주	뛰는 사람
18	김 ○ 산	양심을 팔아요
19	김 ○ 애	탄소로운 식탁
20	김 ○ 경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21	김 ○ 아	두 번째 지구는 없다
22	김 ○ 환	플라스틱이 온다
23	김 ○ 지	내가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24	김 ○ 옥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연번	성함(가나다순)	도서명
25	노 ○ 순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26	문 ○ 정	뛰는 사람
27	박 ○ 숙	뛰는 사람
28	박 ○ 희	깃잎투쟁기
29	박 ○ 찬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30	박 ○ 연	할머니의 용궁여행
31	박 ○ 준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32	박 ○ 수	로컬로 던
33	박 ○ 영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
34	박 ○ 은	두번째 지구는 없다
35	박 ○ 현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집
36	박 ○ 룰	물은 정말 힘이 세.
37	박 ○ 은	모든 치킨은 옳을까?
38	배 ○ 린	바다 인문학
39	변 ○ 숙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40	손 ○ 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41	송 ○ 아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42	송 ○ 혜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제주편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43	신 ○ 진	바다 인문학
44	심 ○ 보	사회적농부
45	이 ○ 철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 되지 않았다
46	안 ○ 연	바다 인문학
47	안 ○ 연	화이트 스카이
48	안 ○ 성	언노운
49	안 ○ 석	양심을 팔아요.
50	양 ○ 연	이제 전쟁 난민보다 환경난민이 많대요.

연번	성함(가나다순)	도서명
51	양 ○ 아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 제주편 돌하르방어디 감수광
52	오 ○ 현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 제주편 돌하르방어디
53	오 ○ 래	깃잎 투쟁기
54	오 ○ 미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55	오 ○ 우	두번 째 지구는 없다
56	유 ○ 자	바다인문학
57	윤 ○ 슬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58	윤 ○ 영	모든 치킨은 옳을까?
59	이 ○ 혜	돌아와 귀신고래야
60	이 ○ 필	사회적 농부
61	이 ○ 훈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62	이 ○ 자	할머니의 용궁 여행
63	이 ○ 리	동물을 위해 책을 읽습니다
64	이 ○ 경	바다 인문학
65	이 ○ 민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66	이 ○ 연	위대한 밥상
67	이 ○ 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68	이 ○ 경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
69	이 ○ 은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70	임 ○ 연	또리네 집
71	전 ○ 정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72	정 ○ 임	꿀벌의 노래
73	정 ○ 남	화이트 스카이
74	정 ○ 란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75	정 ○ 연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76	정 ○ 영	할머니의 용궁 여행

연번	성함(가나다순)	도서명
77	정 ○ 혁	언노운
78	정 ○ 희	뛰는 사람
79	조 ○ 영	나의 문화유적답사기
80	조 ○ 옥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
81	조 ○ 수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82	조 ○ 정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83	조 ○ 미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84	주 ○ 옥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85	진 ○ 주	또리네 집
86	최 ○ 호	이제 전쟁 난민보다 환경 난민이 많대요
87	최 ○ 희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88	최 ○ 서	달을 지키는 곰
89	최 ○ 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90	최 ○ 수	뭐야, 지구가 떠났다고?
91	최 ○ 민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이야기
92	최 ○ 림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93	한 ○ 별	두번째 지구는 없다
94	함 ○ 헌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95	홍 ○ 민	할머니의 용궁여행
96	홍 ○ 애	기후위기와 비즈니스의 이해
97	황 ○ 선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98	황 ○ 주	사람도 꽃으로 필거야
99	황 ○ 나	세계사를 바꾼 16가지 꽃 이야기

2022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읽고 제안하기’

PART 7

부록1 <2020·2021 우수 제안 모음>
부록2 <지속가능발전목표>



2020년 우수 제안 10선

번호	제안명
1	그린뉴딜을 통한 불평등과 기후위기 선도도시 창원통합시
2	나는 공익활동가
3	먹거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시민 운동
4	'세계시민교육' 주간 편성
5	재활용 방앗간
6	지속가능발전센터 구축
7	창원시 '창원에코플랫폼' 구축
8	창원시 연안환경생태체험교육장
9	충분한 자전거 도로 확보 요청
10	충전소 찾아 삼만리

※ 정책 순서는 가나다순

2021년 우수 제안 20선

번호	제안명
1	그물주머니(프로듀스 백) 사용해 장보기
2	기후환경도시 창원형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시스템 지원사업
3	나의 인생 나무"를 가진 초등학교 1학년
4	놀이만 하는 공원 말고 신기방기한 환경공원
5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모아~!
6	배달음식 용기 세척 및 재사용 정책 활성화
7	빛 공해로 인한 인공조명 제한하
8	시민의 힘으로 창원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9	아이들의 야외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
10	아이스팩 수거함과 우유팩 수거함을 만들자
11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쓸만한 장난감을 버리는 공간을 마련.
12	용기 내는 당신이 환경 살리미(살림-ing)!
13	전자 쓰레기 추적 보도
14	지구를 위한 행동, 쉽게! 편하게! 습관처럼!
15	창원시 수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인공구조물 현황 관리체계 구축
16	창원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7	창원시 해양(진해만,마산만) 교육 활성화
18	창원시 행사 및 알림 서비스
19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놀이터)를 만들자
20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누비자 마일리지

※ 순서는 가나다순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의

○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내용

- 2015년 9월 채택된 유엔 합의문의 서문에서는 “이 의제는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음
-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경로를 향해 세계를 전환시키는 데 긴급히 필요한 대담하고 변혁적인 단계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집단적인 여정에 나서는 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라는 의지를 천명함 (United Nations, 2015: 3)
- 유엔 SDGs 2030은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SDGs의 목표와 하위목표가 향후 15년 동안 인류와 지구에 대단히 중요한 영역들에서 행동을 고취시킬것인데, 이들 영역이 소위 5Ps로 일컬어지고 있음 (United Nations, 2015: 3-4)

• 5개 영역(5Ps)

- 첫째, **사람(People)**으로서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는 것임
- 둘째, **지구(Planet)**로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셋째, **번영(Prosperity)**으로서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넷째, **평화(Peace)**로서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는 것임
- 다섯째,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하기로 했다는 것임

• 17개 목표



목표1. 빈곤 퇴치: 모든 곳의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2. 기아 종식: 기아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강화

목표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목표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5.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7. 깨끗한 에너지: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목표10. 불평등 감소: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목표12.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만들기

목표13. 기후 변화와 대응: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긴급한 기후 행동

목표14.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목표15. 육지 생태계: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복원 및 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목표16. 정의, 평화,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수단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2.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의미와 개념화 과정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될 때, 인디라 간디 당시 인도 수상이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진행되었음.

이후 1983년 유엔총회는 ‘2000년 이후 환경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the Environment for the Year 2000 and Beyond)’를 구성하였고, 노르웨이 수상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의장을 맡아 1984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로 이름을 바꿔 연구를 수행함

WCED의 연구 결과물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의장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름)로 발표되었고,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확립함.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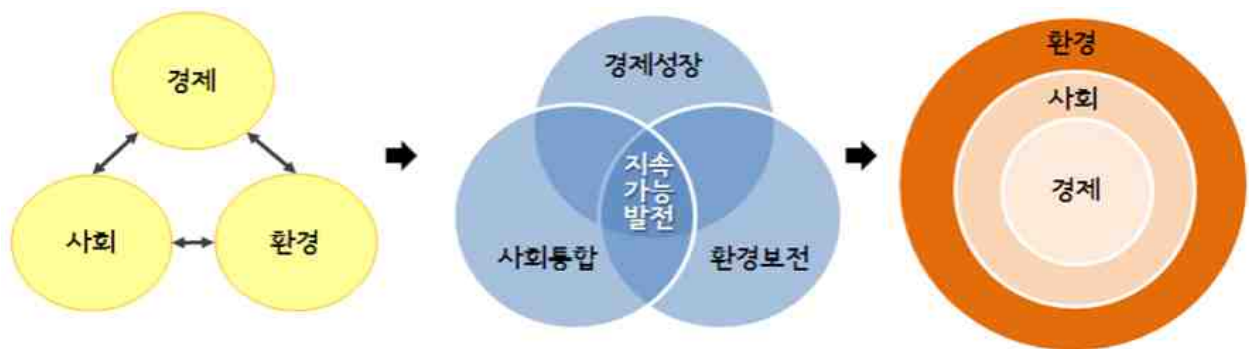
이를 위해 그간 경제, 사회, 환경 각 부문이 따로 고려되어 왔던 것을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창되었음. 이후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포용적인 사회 안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동심원 모델’로 정립, 발전되었음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Our Common Future (UN Brundtland Report, 1987) -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환경과 경제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국가 단위의 ‘의제21(Agenda 21)’ 작성, 지방 단위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작성, 그리고 그 이행을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이어졌음

2012년 리우+20회의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2015년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17개 목표로 구성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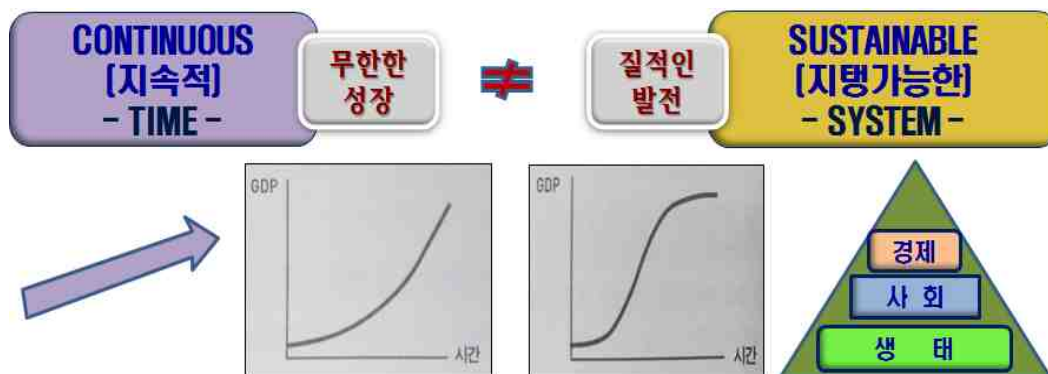
3)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적' 발전 의미의 차이

‘지속가능발전’과 ‘지속적 발전’은 본질이 전혀 다른 개념임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시간적 지속가능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관점에서 생태계가 인간의 사회체계와 경제활동체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 범위의 의미를 담고 있음

지속가능발전은 발전을 지속시킨다는 무한 성장의 의미가 아니라 환경이 사회와 경제를 부양하고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류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임

특히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가 어느 한 영역에서의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관점을 확보해야 하며, 문제 중심의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것임



- 자료: 김병완 외, 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35쪽 수정보완.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2015년 9월 채택된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합의문인「Transforming Our World」서문에서는 “이 의제는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음

유엔 SDGs 2030은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음. 169개 세부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이라 17개 목표별로 각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세부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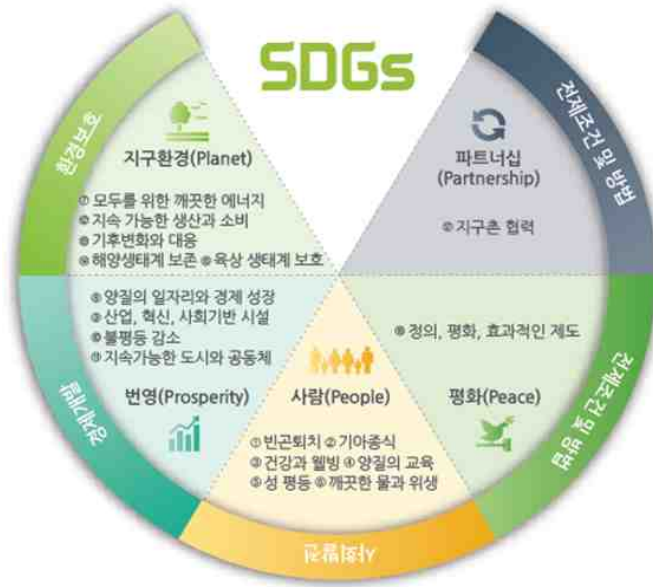
SDGs의 목표연도인 2016부터 2030년까지 각국은 매년 7월 유엔총회에 SDGs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4년에 한 번씩은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이행체계를 점검하기로 되어 있음. 이를 위해 230여 개의 평가지표(Indicators)를 마련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가지 목표들

2015년 채택한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소위 5개 축(5Ps)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임. 사람, 지구, 번영 축은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이고, 평화와 파트너십 축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 조건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 첫째, 사람 축은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는 것임
- 둘째, 지구 축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셋째, 번영 축은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넷째, 평화 축은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는 것임
- 다섯째, 파트너십 축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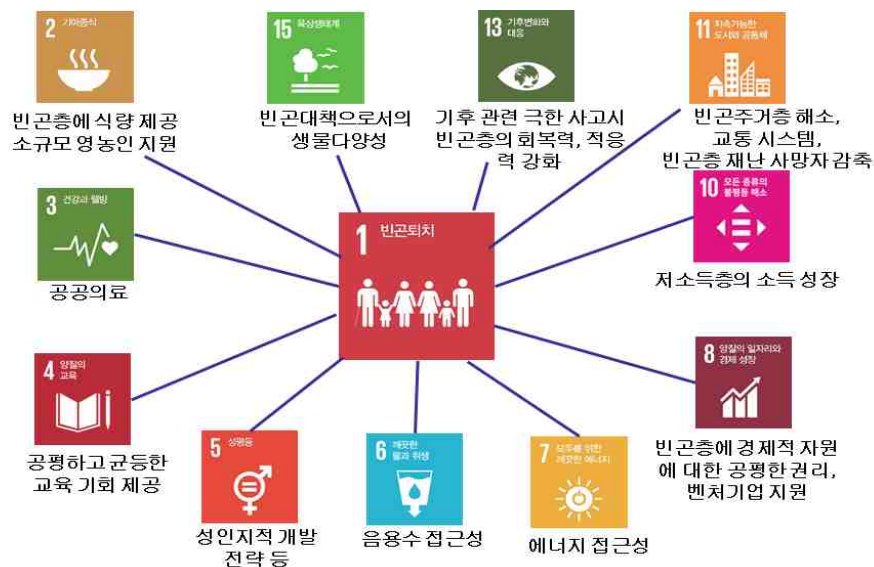
2) UN SDGs 세부목표들 간의 연계성(Nexus)

UN은 SDGs의 1번 목표부터 17번 목표까지 각 목표별로 다른 목표들의 세부목표들 간에 어떻게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는지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각 목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17개 목표는 17개 영역을 단지 나열해 둔 것이 아니라 17개 목표체계를 활용하여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활용법이 더욱 중요함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면 광역과 기초지자체, 마을 단위에서 목표의 우선순위가 나타날 것이며, 목표의 달성이나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표 간 연계, 해당 목표와 관련된 부서 간 협력, 나아가 관련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임

가령 물 문제는 물 관련 목표인 6번 목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표와 영역이 물 문제를 고려하고, 물 목표는 모든 목표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one for all, all for one)



‘지방의제21’에서 ‘지방 SDGs 2030’으로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수립과 실천이 전 세계의 지방정부에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적인 의미를 담은 17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과 임무를 재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을 부여하게 됨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교

구 분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연도	1992년	2015년
회의명칭	유엔환경개발회의	유엔총회(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문서명칭	의제21 (Agenda 2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The 2030 Agenda for SD)
의제구성	Ⅰ. 전문 : 1장 Ⅱ. 사회·경제부문 : 2~8장 Ⅲ. 자원보전·관리 : 9~22장 Ⅳ. 주요그룹의 역할 : 23~32장 ① 여성 ② 청소년 ③ 원주민 ④ 민간단체 ⑤ 지방정부 ⑥ 노동조합 ⑦ 산업계 ⑧ 과학계 ⑨ 농촌 Ⅴ. 이행수단 : 33~40장	Ⅰ. 서문 : 5P 개요 Ⅱ. 선언 : 머리말, 비전, 공유원칙과 약속, 오늘날의 세계, 새로운 의제, 이행 수단, 후속조치와 검토, 세계변화를 위한 행동 요구 Ⅲ.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0개 지표 Ⅳ.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Ⅴ. 후속조치와 검토 : 국가, 지역, 세계차원
주요 그룹	9개 주요 그룹	이해관계자 그룹(MGoS)
지방정부 역할	제28장에 지방정부의 역할 명시(지방의제21 추진 권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구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SDGs 추진 권고
주요특징	ESSD(환경중점) 개념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차원의 실행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의 제시가 없이 추상적 선언의 성격이 강함	MDGs(사회중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와 지표(230여 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기한을 2030년으로 제시함

4.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배경과 작성과정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국민 삶의 질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순이 누적되어왔으나, 현재의 국가정책체계로는 국민 삶의 질을 체감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견인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함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2018년 12월 확정함

유엔 SDGs 수립과정에 준해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고 MGoS 참여 과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K-SDGs 작성과정에는 90여 개 시민사회단체, 192명의 민간전문가, 23개 행정부처가 함께 참여하였음

K-SDGs는 경제(번영), 사회(사람), 환경(지구환경), 평화, 지구촌 협력(파트너십) 등 SDGs 5개 축과 17개 목표의 틀에 따라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를 2030 국가비전으로 설정한 것임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체계와 내용
K-SDGs 2030 목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3)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가)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필요성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의제21이나 지방의제21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SDGs 목표 수립과 달성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의 중요한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2030 의제 45조에서도 각국은 SDGs를 실행할 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은 정해진 의제를 지방정부가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SDGs의 지방화(localizing SDGs)를 강조함. 정책결정, 변화의 촉진자, 지구적 목표와 지역사회 연계 고리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임

SDGs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 국가 및 지자체는 각자 상황에 맞는 SDGs를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2018년 미국의 뉴욕시를 시작으로 영국의 브리스톨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 등이 ‘SDGs를 위한 지방 주도의 전환’을 표방하며, ‘자발적 국가 평가(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와는 별도로 ‘자발적 지방 평가(VLR: Voluntary Local Review)’ 보고서를 내고 있음

나) 21세기형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방 SDGs

SDGs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념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현재 세대가 지향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음

SDGs가 정치적·상징적 언어로서 총론적 수준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SDGs 설정은 물론 구체적인 지방추진계획과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이 뒤따라야 하며, SDGs의 목표와 지표들이 모든 정책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함

SDGs는 환경, 경제, 사회 등 행정 각 부문들 간 융합적·협업적 정책과제의 도출과 더불어 시민, 기업, 행정 등 주요 주체들 간의 협력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 가능함

다) 지방 SDGs 작성의 원칙

■ 원칙 1 : 지역특화형 SDGs 작성

UN SDGs 2030, K-SDGs 2030과 연계하여 17개로 구성된 목표체계를 따르되, 세부목표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SDGs를 수립

〈예시〉 충남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 에너지 공급 체계와 관련한 송전탑 갈등을 겪은 데다 화력발전소가 신설되기도 한 당진시에서는 7번 목표를 '에너지 정의 실현'으로 설정



Ⅰ 원칙 2 : 주요 중장기계획들과의 연계

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분야별 계획 등 주요 중장기계획들과 연계하여 정책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작성

〈예시〉 서울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서울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제정 또는 개정 때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를 수행

세부 평가항목		평가	의견
경제분야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관광·여행·비즈니스를 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사항은 없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검토의견〕 -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적기 개선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우수 -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우수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예상
협치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우수 ☐ 보통 ☐ 보완 ☒	〔보완의견〕 - 최근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과 같이 주거지역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상시적 소통 창구 마련 필요 - 공청회 등의 개최로 지역주민과 관광취약계층 등 모두를 배려하는 관광(Tourism for All) 실현 방안 강구

Ⅰ 원칙 3 : SDGs 목표들 간의 연계

환경·사회·경제 분과로 나누는 ‘칸막이’형 작성을 배제하고, 통합적,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유엔의 목표 간 연계성(Nexus) 전략에 따라 작성함

• 〈예시〉 종로구 마을 단위 목표 간 연계

- 종로구는 각 부서가 마을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각 목표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음



Ⅰ 원칙 4 :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형 방식에 의한 작성

지역의 다양한 주체(행정·시민·기업), 이해관계자 그룹(MGoS) 등이 함께 참여하여 SDGs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 〈예시〉 수원시 SDGs 민관협력 체계

- 수원시는 행정-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자료: 수원시(2019). '2019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계획'

